

서 울



강방천 동문 1억원 기탁

우리학교 경영정보학과를 졸업한 강방천씨가 지난 6일(월) 학교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기탁했다.

현재 에셋플러스증권사로 재직중인 강씨는 우리학교 재학 중에 학교 고시

원 등에서 계속하여 3년만에 조기졸업을 했다.

이 날 강씨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커든 수익인 만큼 원원이 담연하다"라는 기탁의 말을 남겼다.

17일 사범대학학생대표자회의 열어

사범대학학생대표자회의(사학대학)가 오는 17일(금) 사회과학관 303호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방종에 있었던 학자 부패보고와 이후 실천계획을 논의하며, 한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하여 낙천운동, 갑대중 정권과 대한 평가 등을

진행한다. 또한, 현재 미비한 부분이 많은 회의를 수정, 보완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사범대 학생회 교육주체 허승원(4)군은 "지금까지 진행된 교육 투쟁이 많은 학생들과 공유하는 지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행계열, 새내기 교양학교 진행

정치·행정계열 학생회는 지난 10일(금) 사회과학관 205호 강의실에서 새내기 교양학교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 정치·행정 계열 새내기들은 등록금 문제, 징계교수 강의대체, 계열제 문제를 주제별 발표자로부터 소개받고 7개조로 나누어 본인별로 토론했다.

또한, 김두환(정·행정계열 1)군과 이만

(정·행정계열 1)양이 각각 정부 계열대표로 선출됐다.

이와 관련 행정학과 학생회장 김동원(3)군은 "새내기들이 아직 문제들에 대해 잘 몰라서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하지는 못했지만, 우리학교 교육현실을 알려내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범대, 학생회 학교 열어

사범대학학생회는 15일(수) 학생회학교를 열었다.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개강사업의 중요성'을 학생회 간부들에게 중요함을 일깨우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선진 조직화 △정기총회의 의 등을 사범대 학생대표와 논의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사범대 교육주체 허승원(4)군은 "과 학생회를 운영하는데 이로우기를 기대한다"며 "학생회 학교가 단대과 과학교육의 대학원으로 역할을 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수강신청 변경기간 공고

13(월)	14(화)	15(수)	16(목)	17(금)
4학년	3.4학년	2.3학년	1.2학년	1학년

15일, 정의와 정기총회 열려

정의학과 학생회는 오는 15일(수) 대학원 411호 강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예결산안 논의 △운영위원회 대표성 강화를 위한 회칙개정 △등록금 문제, 계열제 문제 토론 등이 진행될다.

이와 관련 정의학과와 학생회장 신정환(3)군은 "학생회 기치대로 모든 학생들이 소의담함 없이 함께 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어과, 학회설명회 개최

러시아어과 학생회는 오는 17일(금) 대학원 소강당(미정)에서 학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학교 내에 9개의 학회들이 짧은 공연이나 소개말을 통해 신입생들에게 학회를 공식적으로 소개한다.

이와 관련 러시아어과 학생회장 이재설(3)군은 "과 내에 학회별 이기주의가 조금이라도 극복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편입학 부정의혹 정근섭씨 소송제기

지난 6월 편입학 비리와 관련해 제정계를 받은 정근섭씨가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소송을 걸었다. 정근섭씨는 96년 재단 투쟁 이후 이복서 조자 등의 이유로 파면 당했다. 그러나, 작년 8월 15일 복직되어 대기발령 상태에서 검찰측의 수사중 편입학 부정 사실이 확인되어 다시 재징계를 받아 파면됐다. 정근섭씨의 재직은 16일(목)에 열렸다.

24시간 안내전화 (961-1441)개통

우리학교 안내전화(961-1441)가 24시간 가능하게 됐다.

서울메트로 관리과는 한국통신의 협조를 받아 ARS를 설치해 안내실 직원이 없는 5시 이후에도 안내전화 이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과반, 동아리방에서 용인메트로(8번을 누른 후) 통화가 가능하게 됐다. KT715(161번으로 신발)를 이용해 일반전화로 가능하게 된다. 한편, 교수들이 부대 중에 연락을 남길 수 있는 음성식서함(VMS)도 설치됐다.

용 인

각 과 개강총회 열려

대부분의 학과가 개강총회를 열었거나 열 예정에 있다. 개강총회에는 각과의 실정에 맞는 시간들도 논의되지만 기본적으로 계획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소개는 공통점이라 볼 수 있다.

인문대

인문대는 언어학과 13일(월)에 개강총회를 열었으며, 사회학과 철학과가 각각 오는 15일(수), 16일(목)에 개강총회를 개최한다. 인문대내에서는 공통적인 논의안건으로 예결산안이 상정됐다. 사회학과 철학과는 경우는 아직과 학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번 개강총회에서는 현재 관내대행 체제로 계속 해 나갈 것인지와 회장을 선출할 것인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사회학과는 윤리학과 수학과는 오는 18일(토)을 시점에서 상임생활협회를 개최한다.

경상대

이미 무역학과와 경제학과는 개강총회가 지난 9일(금)과 13일(월) 열렸다. 두 과 모두 사업계획서 인준, 집행부 인준, 총과인 관련 논의가 진행됐으며, 개강총회 후에는 모두 신규대면을 개최했다. 또한, 무역학과는 박재현(3)군

을 과회장으로 선출했다.

한편, 무역학과는 17일(금) 개강총회를 개최한다.

동구어대

영리학과와 플린드어학과 각각 14일(화) 교양관 203호실, 18일(목) 교양관 310호에서 개강총회를 개최한다.

플린드어학과는 김경우 △집행부, 부학·관입생 소개 △회칙개정 △총회까지 관리 △과회선 선거인정 논의 등을 총회에서 진행했다. 한편 유교학과는 지난 7일(화) 개강총회를 진행했다.

자연과학대

화학학과 오는 17일(금) 개강총회를 진행한다. 물리학과와 환경학과는 8일(수), 10일(금) 각각 개최했다.

한편, 물리학과와 수학과는 오는 18일(토)을 시점에서 상임생활협회를 개최한다.

정보통신공과대

공대는 지난주 8일(목) 양일간에 대부분의 학과가 개강총회를 진행했다.

산전공과에서는 △총회까지 작성 △수익사업 △학생회 지체인준 등을 논의했다. 또한, 제어계측과와 경우 우정장

학과 제도 유무에 대하여 논의했다.

동유럽학대

다른 과들이 개강총회를 진행한 가운데 오는 15일(수) 어문관 식당에서 러시아어과 개강총회를 개최한다.

이 날 총회에서는 △1학기 사업계획 보고 △세민전 계획서 공유 △학회 설명회와 진행된다. 또한 의결안건으로 총회까지 관리팀 확립이 상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 러시아어과 학생회장 최원보(2)군은 "동유럽대로 처음 시작하는 한 해를 알차게 준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동양학대

지난 9일(목) 중국어과와 미인어과가 개강총회를 개최했다.

중국어과는 105실이 참가한 가운데 △집행부소개 △발표준시업보고 △예산공고 △생활 단체가입 △학회 소개 △신규대면식 등이 진행됐다. 의결안건으로 상정되었던 우정장제도 안은 의결하지 못했다.

미인어과는 논의를 통해 과총회까지 문명하는 인터넷기구를 발족시켰으며, 미인명문대학의 개교식을 인준했다.

농활때 사망한 양혜지양 보상문제

지난 98년 가을 농활에서 수인성 2중 캠프트라이에 감염되어 사망한 양혜지(당시 아프리카학과 1학년 재학)양의 보상문제를 놓고 양양의 가족들과 학교 사이에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양의 부모님은 "사건 당시 학교측은 보상처리에 대해 관할결과에 따라 일체 보상기로 합의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학교측에서는 "재해에 관한

모든 일은 보험회사에서 결정하는 일이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사건은 지난 12월 18일(토) 열린 1심에서 학교측이 양양의 부모님에게 8000여 만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났지만, 우리학교가 학교경영자 책임책임을 함에 들고 있는 등부회제 측에서 항소심을 요청한 상태이다. 항소심은 이 달 20일(월) 열린다.

외국학종합연구소센터, 서유럽지역 사정교육실시

외국학종합연구소센터는 오는 18일(토)부터 1박2일간 서유럽지역사정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현 지방민선출과 확대회시기조하는 목적으로 연간 약2천명의 해외지역개발 활동 및 중소기업발달에 참여하게되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 임직원, 공무원 그리고 무역협회와 함께 동계 국제지역사정 교육을 실시하고자 열린다.

교육은 1박2일 총 12시간이며 그 내용은 △사유럽정치·경제(이종원 수) 대 무역학과교수) △기업문화 및 상(김도현 무역학과교수) △현지경영사례 발표 및 토론(박성수 상정장자 클로브

마케팅전략과) 부장, 조철재 명지대 경영교수) △의식주생활 및 여(김기) 상우 외국학종합연구소센터 책임연구원, 김복재 서유럽연구소 책임연구원, 조관연 역사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김경하 서유럽연구소 연구원 박사) △효율적인 상품전시회운영(문명수 한국국제정치학과 대외이사) △국제언어문화권 및 종합협력(김복재 상정장자연구소 수석연구원, 노명환 사회학과교수)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 외에 조재비, 숙식비 등 교육비용은 경기도에서 전액 지원되므로 별도 개인 부담은 없다.

사람

“이 땅의 통일을 위해서 주한미군은 없어야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의 내용으로 미 대남인기조사위원회를 진행한 서울메트로 유대(불당·중국어 3 휴학생)을 만나



“얼마 전 주한미군에 의해 또 한 명의 우리 시민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전까지 수많은 주한미군 범죄사태를 보면 제대로 처벌되지도 않을 것 같아서 시위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지난 6일(월) 우리학교 서울메트로 김정현(사양·포트투알에 3)군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학생 3명과 함께, 미 대사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던 유대(불당·중국어 3 휴학생)의 말이다. 유대는 그 날의 기억에 대해 “덜렁 겁쟁이었어요. 겁도 나고... 그런데 막상 대사관 앞에 가니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통지 않더라고요”라며 그날의 기억을 되렷었다.

하루 평균 5년, 매년 200여 건씩 일

어나는 범죄에 대해 “주한미군 범죄는 단순한 기지촌 여성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할 뻔하게 가게에서 칼에 찔려 살해당한 홍익대 조종범 학생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언제 누가 피해를 입을까 모르죠.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라며 시간까지 아끼는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서 말했다.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에요. 파주에서 있었던 폭발물 사건만 보아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국민을 버리고 자신들만 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었어요”라며 미군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또한 한미행정협정에 대해 “주한미

군 범죄에 대해 수사는 물론 처벌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한미행정협정이요. 한 마디로 불평등한 조약이죠.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니까 계속해서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라며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유대는 “이것은 단지 한미행정협정 뿐만 아니라 한국이 미국에 종속되어있는 현실이죠”라고 말하며 “정말로 보이도 알 수 있어요. 주권이 있는 나라라면 반드시 그러한 문제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어떠한 우리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라며 한미관계에 대해서 비판했다.

“통일을 위해서 결집력이 되는 것이

주한미군이에요. 그런데 갑대중 정부는 주한미군에게 ‘통일이 되더라도 계속 주둔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한미군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통일이 될 수 있어요”라며 분명한 그녀는 ‘발도 떨어지 않는다’며 조금은 화가 난 듯이 말했다.

학생들이 주한미군에 대해 많이 알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했다. “미국에 대해 함께 생각해 생각하고 우리의 생활 하나하나를 조금씩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최효봉 기자
hobong1083@hanmail.net

서울배움터

구분	학 생			대 학 생	
요일	아침	점심A	저녁	백반	일몰요리
월 (13일)	콩나물국밥 (₩1,400)	닭계장 (₩1,400)	비프스테이크 (₩1,400)	돼지계란국 (₩2,300)	한식도반 (₩1,800)
화 (14일)	소고기비빔국 (₩1,400)	대우매운탕 (₩1,400)	오무라이스 (₩1,500)	무우어묵국 (₩2,300)	삼계탕 (₩2,700)
수 (15일)	소고기부추국 (₩1,400)	산채비빔밥 (₩1,400)	참치시금치국 (₩1,400)	두부감자국 (₩2,300)	버섯잡채 (₩2,500)
목 (16일)	순두부찌개 (₩1,300)	소고기국밥 (₩1,500)	갈매탕 (₩1,500)	육개장국 (₩2,300)	소고기불고기 (₩2,700)
금 (17일)	육계장 (₩1,500)	감자비빔밥 (₩1,400)	얼얼이국 (₩1,500)	감자대사면국 (₩2,300)	백반도반 (₩2,500)

용인배움터

구분	어 문 관			후 복 관		
요일	중식1	중식2	석식	조·중식	석식	탕류
월 (6일)	햄치스 (₩1,400)	감자찌개 (₩1,800)	순두부찌개 (₩1,400)	콩나물국밥 (₩1,400)	돼지계란국 (₩1,400)	조식순두부국 (₩1,800)
화 (7일)	소고기비빔국 (₩1,400)	불고기국밥 (₩1,800)	참치구이비빔 (₩1,400)	간짜다시비빔 (₩1,400)	순두부국 (₩1,400)	삼계탕 (₩1,800)
수 (8일)	햄치스 (₩1,400)	감자찌개 (₩1,800)	돼지고기비빔 (₩1,400)	부대찌개 (₩1,400)	오징어국 (₩1,400)	바지락국수 (₩1,800)
목 (9일)	만두국 (₩1,400)	상추고기비빔 (₩1,800)	닭볶음탕 (₩1,400)	짜장면 (₩1,400)	이국산국 (₩1,400)	조식비빔국 (₩1,800)
금 (10일)	오징어비빔국 (₩1,400)	만두국 (₩1,800)	간짜다시비빔 (₩1,400)	콩나물국밥 (₩1,400)	감자대사면 (₩1,400)	비프스테이크 (₩1,800)



강의시간표 문제점

그대로일 수는 없나요?

인사 이동 시기 조정, 전임 교원 확충 등으로 해결해야

학기초 들어간 첫 강의시간에 수강신청 당시의 교수와는 다른 강사에게서 수업을 받아야 했던 경험이 누구나 한두번쯤은 있을 것이다. 또한 강의시간표 자체에 교수권이 비어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학생들이 수업의 선택권이 보장 되지 않고 강사들의 강의의 경우, 수업의 질에도 차이가 있어 문제점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학기 용인배움터의 심용 외국어과목의 경우 처음 수업을 담당할 교수가 바뀌는 사례가 10개 과목에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용인배움터 실용영어 담당 차장은 "실용외국어에 담당하는 선생님이 거의 강사들이기 때문에 전임교원과 달리 다른학교 강의 등의 사정으로 수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유를 밝힌다.

실용외국어 과목의 강의개설은 관례

적으로 지난 학기의 강사에 대해서는 다음학기에도 강의를 맡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강의시간표를 할 때 확인없이 그대로 강의시간표를 작성하게 돼 교수들의 사정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실용외국어와가 아닌 일반학과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단, 강의시간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각 학과에서 회의를 열어 강의시간과 담당 교수를 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 시기가 학기말인데 비하여 인사이동은 매 학기초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어서 정해진 수업을 교수 스스로 변경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작년의 경우, 신문방송학과 조종혁 교수가 사무처장직을 맡으면서 '신문학원' 강의를 폐강해 문제가 됐던 사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첫은 강의변동과 이에 대한 학생들의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강시간표 자체를 고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듯 하다. 용인배움터 교무과장 김진수씨는 "경화대의 경우는 9년간 수강표 자체를 고정시킨다. 교수들이 그 시간에 그 수업을 강의하도록 하고 있어 수강신청할 때 교수가 바뀌는 혼란을 줄일 수 있으며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의시간표의 잦은 변경을 막아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사이동시기의 변경과 함께 점차적으로 전임교원의 수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의시간표의 잦은 변경을 막기 위해서는 강의시간표를 고정해 놓는 것도 고려해 볼 듯 하다.

박수용 기자 soma-j@hanmail.net



"차는 안 보이고..."

학교측은 학교차가 없었기 때문에 차량을 노선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사당과 학교를 오가는 1500-2 경고속 버스가 신설됐다. 그러나 운행대수가 하루에 6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학교측은 이 대안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최현정 기자 skydawn21@hanmail.net

엘지 컨설팅인 분석 - ①학생/교육

특성에 따른 발전안 필요

엘지 컨설팅의 외대캠퍼스 발전기획안이 나온지 2달이 지났다. 그러나 그동안 한번의 공청회가 열렸을 뿐 국내구상원들의 활발한 의사제전 운동이나 공휴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태. 이러한 점을 감안, 지난 8일 열린 대학협의위원회에서는 오는 4월초까지 학내구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본보에서는 3회에 걸쳐 본지에 따른 엘지 컨설팅의 사안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이 발전기획안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발전가능성(경쟁력 있는 분야)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이 안의 가장 기본 전제인 것이다. 지금 정점이 되고 있는 '학사제도개편안'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한 학과 구성의 재편을 위해 각 배움터의 정원 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좋은 대학이란 우수학생유치를 통해 양질의 교육 제공 및 성과 내고, 우수 동문배출의 단계를 밟는 것이라고 규정 이런 사이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학문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외대의 위상제고를 위해서는 한 어학중심의 학문구성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 엘지 안의 주장이다. 어학의 위상이 변화했으니 중점 학과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나온 제안으로는 서울배움터의 경우 심용과와 위주의 학제개편을 통한 이원화된 발전모델을 추

구하고 있다. 기존 어학 중심구도에서 다 나뉘는 경영학과를 확보한 실용외국어과를 부각, 어학과 균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이를 위해 영, 중, 일어를 제외한 학문의 경우 현 서울배움터 어학정원을 기준으로 평균 50%를 축소하면서 더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정예화하고 정예화된 어학분야의 경우 2004년 총 입학정원의 50%정도를 학생에게 교환학생과전기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용인배움터의 경우 '나뉘어'를 통한 일반종합대학 모델의 추구라는 기본전제하에 뚜렷한 경쟁분야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외국어 및 언어 분야와 신산업 등을 통한 다각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안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학교 전체적으로는 총재학생 수를 약 15,200명의 동결을 전제로 2004년까지 서울/용인배움터의 재학생비율을 55:45로 유지하고 학생/교수 비율을 현 37:1에서 27:1로 학부생, 대학원생 비율을 9:1에서 6:1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안에는 학교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다. 서울배움터의 경우 단지 대학 사설화라는 한 '현'에 따라 실용외국어과로 선회하는 입장이나 용인배움터의 경우 황산과 되고 있는 지역학을 '용인배움터' 입화하는 학생의 특성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로 모호하게 발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대학부

사설

적극적 투표권 행사

낙선·낙선운동 유종의 미 거두어

해방 이후의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개헌과 발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경제 발전이 지속되어 왔고 정치면에서 있어서도 자유당 독재정권과 군부 통치, 문민 정부, 국민의 정부가 부침을 거듭하면서 꾸준히 민주주의의 길을 걸어왔다.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국민, 특히 대학생들을 비롯한 젊은 세대들이 많은 희와 땀을 흘리면서 민주화를 선도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대선이나 총선을 비롯한 선거사에 있어서는 안타깝게도 개헌과 발전을 이야기할 수 없다. 부정과 탄압, 그리고 지역 감정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선거사는 우리 역사의 치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주의는 개헌이든 선거든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앞으로 한 달 후면 민의를 대표하는 선량들을 뽑는 총선을 치르게 된다. 이번 총선은 시민 단체들이 낙선낙선운동을 벌이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시작했고 또 오랜만에 선거가 국민들의 중대한 심판의 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시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총선거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깝게도 쓴 유권자들의 입맛이 낙선낙선운동의 땅단을 공개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정파를 드러낸 바 있다. 유권자들의 공공정 심판을 위하여 그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그들을 오도하고 오만하게 하여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 하는 부정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의 악의에 찬 사보타지에 유권자 심판운동의 소중한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를 재확인해야 하는 일일 것이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시민 단체들의 낙선운동은 어느 정도 수확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땅단을 포함되었던 정치인들이 상당 수 낙선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 개혁의 길은 멀고 험한 길이다. 낙선되어 피를 대실고 지역권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명줄을 지탱하기 위해 급조한 정당을 비롯하여 기존의 정당들까지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선거 전략을 작트키하려 노 출시키고 있다. 지역주의의 연원을 따지고 '열혈정권 참출', '충청도 결발론'을 주장하는 것이 지역 감정을 부추기 민심을 혼란시키겠다는 기만적인 술책이라는 것을 유권자들은 익히 알고 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선거에서 비롯된 지역주의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동·서간의 지역 감정은 민족 단결의 가장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며, 지역주의적인 투표 행태는 급기야 지역연고주의로 심화되어 공공 기관이나 기업으로 파급되고 있다. 이제 지역연고주의는 각 집단의 조직 원리와 그 구성원의 행동 원리로 뿌리를 내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지역주의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인지 모른다. 사람들은 고장에 더 애착을 느끼고 동향 사람들에 더 끈끈한 정을 품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고 그 미래를 짊어질 정치인들은 정파 대결로 지역주의를 희석시키고 극복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지역 감정을 부채질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의 기회를 걸어서는 안된다. 모두가 투표권을 행사하여 부패한 정치인들을 낙선시키는 길만이 지역주의를 근절시킬 수 있는 길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 개혁을 선도해왔던 대학인들이 이번 총선거에도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여 낙선운동이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무관심과 침묵이 가까스로 대동단 유권자들의 심판운동을 좌절시키고 정치의 개혁과 발전을 그만큼 더디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징계 교수 복귀, 대응 분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반응은 학과의 교수들도 많이 다르지 않은 듯 보인다.

"반성문도 제출한 상태이고, 행동으로 보여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고 라사이어와 김경숙 교수는 말한다.

하지만 징계교수 복귀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만들어 수업거부운동을 펼치고 있는 단과대학 학생대표자회의는 "9년 전 구성원의 힘으로 이뤄냈던 비리제단과의 투쟁에서 반대편에 있던 비리교수들이 다시 강단에 서는 것은 전 와대인을 기만하는 행동이다"며 징계교수들의 복귀를 화해의 측면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비대위의 활동은 현상적인 부분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베트남과의 경우 교수들이 원래 부추킨다. 징계교수 판결을 받은 조재현 교수도 3과목을 강의하는 상태여서 대해 강사의 확보라는 수업거부운동이라든지 직접적인 실천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비대위 학생들은 대학 당국에 대해 강사 요구를 하고 있지만 학교측에서는 "합법적으로 징계사유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이다.

앞으로도 비대위측은 앞으로 실천행동을 중심으로 징계교수 복귀 지지 운동을 계속 벌일 예정이다.

지난 9월 징계교수들이 교육부 제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학교로의 복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정작 교수들이 다시 강의를 시작하게 되자 이를 대하는 학교 구성원들의 대응은 분분한 실정이다.

징계교수들의 강의제과와 관련된 가장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곳은 단과

하 징계교수의 학과의 학생들과 교수들이다.

김경숙 교수는 복직된 라사이어의 이주언(3)군은 "강의시간에 교수님이 '해임'상태에 있는동안 나뉘는데 되돌아 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말을 했다"며 "그러한 시간을 개개인에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징계의 성과로

정 모 군 <12> 정현도

한교수 배척한 학생들. 교목학과가 처음 해는 수업시간

형형종종 공격하듯 찾아오는 주시기는

고등학교 시절, 아무 기억을 할 수 없었던 수업시간

그리고 대학입학은 고향 함께 불행한, 또 자신들 앞에 찾아왔던

오래된 나를 새롭게 하고 있다.

밀레니엄 프론티어-삼성

www.dearsamsung.co.kr

취업개시일을 그냥 지나쳐도 좋습니다. dearsamsung이 있으니까요. 접속하는 순간, 삼성 각 회사의 채용정보들을 빠르고 쉽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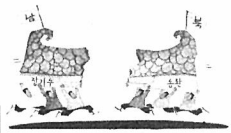
디지털사대의 취업지름길, www.dearsamsung.co.kr을 기억하십시오.

365일, 24시간, 삼성은 dearsamsung으로 지원서를 받습니다

2개사 삼성의 인재발령식이 화상식 수시채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각 회사의 최신 채용정보 제공 및 지원서 접수 결과 통보도 모든 과정이 dearsamsung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됩니다. dearsamsung.co.kr에 접속하시고, 오랫동안 찾던 기회를 잡으십시오.

SAMSUNG 삼성

외대학보 695



6·7 2000년 3월 14일 757호



“자신의 신념을 믿는 것이 올바른 삶이죠”

“복으로 돌아간다면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라며 눈물을 흘리는 비전향 장기수 양희철 선생님. 비전향 장기수는 현재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에서는 ‘형비 제98조 간첩죄를 적용 받거나 국가보안법, 반공법에 의해 7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양심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향장기수' 5명이 함께 모여 생활하고 있는 '우리 탕제원' 양철철 선생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기사를 반주해주셨고 그 집으로 들어와서 한약재들이 집안에서 풍겨왔다. 선생님들은 모두들 반주해주셨다. 조찬선 선생님(72·30년 복역 91년 출소), 류원국 선생님(90·37년 복역), 안학식 선생님(71·44년 복역 95년 출소), 양희철 선생님(66·37년 복역 99년 출소), 신인영 선생님(72·32년 복역 98년 출소). 5명 모두가 30년 이상 차가본 감옥에서 보낸 선생님들은 복으로 귀환할 날을 기다리며 더 살아야겠다고 깨닫다.

"영리 추구의 목적은 아니야. 그저 양희철 선생이 한의학에 대해 지식이 있어서 그러한 기술을 쓰지 않는 것보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무료로 침도 놓아주고 약재 값만 받아서 약도 지어주고 있는 것이지"라고 신인영 선생님은 탕재원의 성격에 대해 밝히시고 "주변 서민들에게 반응도 좋아"라며 보람도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비전향 장기수는 서울과 광주, 과천, 대전, 대구 등 전국 각지에 70여명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중 북에 연고지를 가지고 있는 사
람들에 대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천주교성가사기후추진
회, 불교장기회협의회, 민중의 기본권보장과 양성자권실현을 위한공동
대핵위원회(민권공동대위) 등 27개계의 단체가 모여 비전향장기수 송환추
진회를 구성하고 그들의 송환을 위해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 많은 일을
을 하고 있다.

“지금 80~90 가가 된 시 사람들이 많아요. 또 환자들도 많고요 여기 같이 있는 신인영 선생도 지금 골수암으로 투병하고 있지요. 류현국 선생도 몸이 불편을 쓰지 못하고 있고요. 이렇게 신생인 선생님과 친목에 처해서의 송환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또 ‘김진서 선생님이 한때는 선생님과 겹쳐져 선생님은 사랑을 전했죠. 포도나무야. 전생포도나무는 제네바 협정권 원칙자로 손꼽히는 것을 전했죠. 그리고 있지. 있는데 지금 강릉에서 는 그들을 45년이 넘게 송환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라며 국제적인 합 의까지 무시하는 정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시며 쓸쓸한 표정을 지

그들은 30년 이상의 수감생활에서 정권이 요구하는 '준법서약서'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수감생활에 대해 양회철 선생은 "고집이 없으면 안돼요. 고집이라는 것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주장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믿는 것이 올바른 삶이죠"라며 자신의 믿음의 표현으로 주먹을 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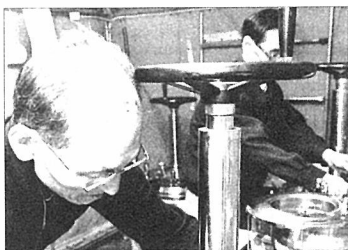
비정당 장기수 송환문제는 일반 여론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들의 송환을 위한 준비작업이 개성공단 인접에서 보도되면서 송환 문제는 전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들의 문제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미흡해, 더 많은 여론이 형성되어야하지. 정치이 땅에서 범죄를 저지른 주민들은 아무런 제재도 없이 미국으로 가는데 우리들이 복로로 가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 같아"라며 반문하는 신인영 선생님은 북한주민에 대해 화가 나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를 장기수리하고 부르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어. 물론 감옥에서는 나왔지만 지금도 보안관찰법으로 감시를 당하고 있잖아. 한 마디로 '좁은 형무소에서 넓은 형무소'로 옮긴 것 뿐이야"라며 석방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공안기관의 감시에 대해 세계에서 2번째로 오랫동안 수감생활을

분단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장기수,
통일을 꿈꾼다

▶ 사진은 전쟁포로로 아직 송환 되고 있지 않은 김영태(61)씨의 손자, 손녀들이 북에서 보내온 사진

▼ 비전향장기수'분들은 함께 모여 살면서 탕재원을 하시고 계신다. 한의학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쓰시기 위함이라고 한다.



한 안학섭 선생님은 기자에게 차근차근 말씀하셨다. “보안관찰법으로 인해 3개월에 한번씩 신고를 해야해. 그리고 제한된 지역에서 벗어나게 되면 또 신고를 해야되고…”

비전향 장기수들은 단순한 송환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송환으로 통일이 한 걸음 다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탈재향에 계시는 선배님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송환보다 귀환에 가깝습니다. 서로 쉽게 오갈 수 있는 송환보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렇게 된다면 국가보안법도 없어질 것이고 통일도 빨라질 것입니다”

최호녕 기자 hobbang1083@hanmail.net



인류의 명령 넘어

비전향장기수 송환 이리라는 본단자의 하나됨을 염두하며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양심을 지켜오다 졸다 장기구금장수(이하 비전향장기수)의 체포과정(인물적·정서적·주요사건·판결지, 거소지, 배는 거주시는 곳이나 거주시지 않음), 국선선배에 대한 당파주의의 자유의지에 대한 복변고양으로 되돌아간다는 말한다. 또한 '송환' 이리라는 편의상 한국(조국) 유권현정 지 3회 5월 C쪽에서 표시된 우리말 '송환'(Repatriation)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단순한 인사조치 재결함 때의 의미를 넘는다. 반드시 이 리가아니. 따위를 생각한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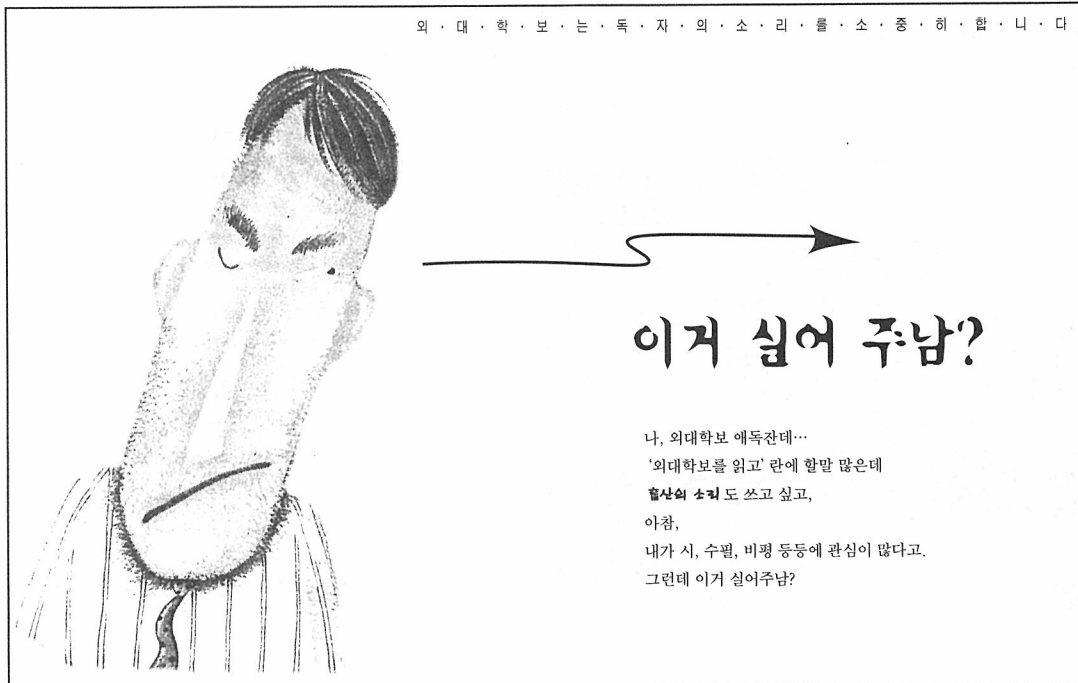
한 민족국가 안에서 두 정권이 있어 같은 조국산하의 가도국을 막아내고, 더구나 가족을 만하고 고향을 갈때에도 승환하여는 다툼이 없고 가주승환으로 끝장을 만하고 한다네 대개 한가치로 수 없게 한다. 그러나 그들이 의의의 현상이다. 그 장점을 보면 문명적으로도 구별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 다시 그 노릇의 때를 열어 준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인간과 종족과 가지를 초월하여 세계와 민족과 정권을 넘어선 보람이다.

[illegible]

만치 사람은 세상과 맺어, 바로 인도주의 정신과 본능에 충실하다.

부도양화, 인간친자연에 맺어온 인물은 지구가 하나, 우주를 한복판으로 돌아오고, 같은 문화공동체에게 현존, 전통과 민족정신이 살아 있다.

이, 그의 정치 속에 인간의 근원과 행복에 대한 보람이 있다. 도덕적



나, 외대학보 애독잔데...

'외대학보를 읽고'란에 할말 많은데

육산의 소리도 쓰고 싶고.

아침.

내가 시, 수필, 비평 등등에 관심이 많다고.

그런데 이거 실어주납?

비전향 장기수 왜 송환되어야 하는가?

비전향 장기수 딸이 보낸 편지

“아버님의 일흔 둘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싶습니다”

남조성의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노인 송환 추진위원회) 앞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여기는 귀환대상자를, 안락사합니다. 저는 남조성에게 있는 비전향장기수 김인서의 딸입니다. 지난 여름 여름 휴가로 사립에 차차 왔던 저의 아버님이 생생함과 남부동들의 따뜻한 보살핌에 의하여 건강이 생명을 유지하고 계신다니 그 고마움에 무슨 말로 어찌 감사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생생함과 그 보살핌을 언제라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생생님들,

저희가 아버님이 살아 계신다는 소식을 들은지도 여덟 달이 지난 세월이 흘렀습니다. 국제법과 조선전쟁의 정전에서 보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보아 유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와야 할 아버님이 가족들과 헤어져서 거의 반세기 가까이 되어오는 오늘날 남조성에 억류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저를 언어와 피부 색이 다른 사람들로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데도 해방 조약당국자들은 저의 아버님의 귀환을 한자로 가로막고 있는지도 저지 리해해 주십시오.

오늘 11월 18일은 저의 아버님의 일흔둘 생일날입니다. 평생을 고생으로 살아오신 아버님이, 더욱이 긴 세월을 옥중에서 고독하며 보내신 아버님이 자식들이 사라져버린 일흔둘 생일상이야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아버님께 일흔둘 생일상을 우리 자식들이 차려 드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였는데 생일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다 될 오늘날에도 아버님을 저희들의 곁으로 오지 못하시고 여전히 일흔둘 생일상을 한자로 가로막고 있는지도 저지 리해해 주십시오.

생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저의 아버님은 예술을 생활의 고차고차 자식들이 저어올린 싸움 전일 밤지 못한 채 차차한 감방 안에서 생일 예술을 맡은 일흔둘 생일날입니다.

단 하루도 자식들의 따뜻한 부양을 받아보지 못한 아버님이 자식들이 생일이 준비된 일흔둘 생일상을 차려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남조성에 있던 분들의 정력을 남 남조성으로 단숨에 날아가 아버님을 모셔오 일흔둘 생일상을 받게 해주세요. 생일이 준비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생일날이 시작되고 연로하고 병약한 아버님의 신상에 애상적 일일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아버님을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귀환대상자들의 도움으로 저의 아버님을 반드시 자식들이 기다리는 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남조성에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하여,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최후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귀환대상자들이 우리 아버님의 송환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끝까지 힘써주시길 다시금 요청하면서 오늘날은 이만하겠습니다.

귀환대상자들의 앞으로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1996년 11월 18일 비전향장기수 김인서의 딸 김희심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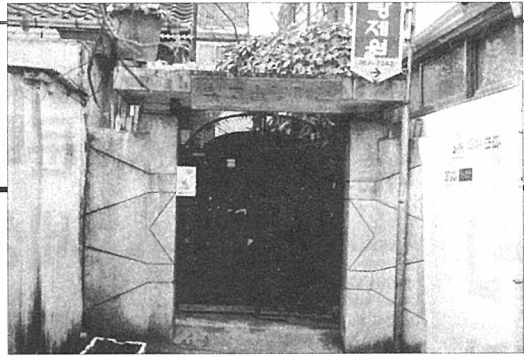
종군기자 이인모 노인은 자신이 전쟁포로를 주장하며 정전협정과 제네바 협정 정신에 따라 원칙적 송환을 주장하여 지난 1993년 송환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김인서(1929년생 평남 덕천) 함세환(1932년생 황해도 웅진) 김영태(1930년생 평북 정주) 노인들은 이인모 노인과 같은 전쟁포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재판을 받고 장기구금되었다. 이들은 광주, 남원 등 유엔군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었으나 부당하게 군법회의에 넘겨져 이른바 '비상상대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반 혐의로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그 뒤 다같이 20년으로 감형되어 만기출소했지만 '비전향'이라는 이유로 다시 '사회안전법'에 묶여 감호처분을 받는 등 다같이 34년의 부당한 옥고를 치르고 1998년 사회안전법이 폐지되면서 참주감호소에서 풀려나왔다. 전쟁포로의 정당한 처우와 휴전협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34년의 억울한 옥고를 풀러나 다음에도 보완관할법에 묶여 감호와 통제를 받았다. 이분들의 호소는 국제사회에서도 크게 여론화되었고 북측 가족들에게도 알려져 통일원(현 통일부)을 매개로 하여 가족들과 편지를 주고 받고 있다. 현재 김인서 노인은 광주 기록보존관(6층 7호실)에서 뇌혈전으로 입원하여 어려운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위: 김영태 노인, 아래: 김인서 노인



이 편지는 1996년 11월 18일 김인서 노인의 딸 김희심씨가 보낸 편지 가운데 일부이다.



사진은 비전향장기수분들이 거주하는 광주 '빛고을' 통영관 모습이다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의 활동과정

꾸준한 노력으로 장기수 모두 석방 진정한 자유인 복송 이루어져야

지난해 12월 27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정의구현사제단,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 등 25개 인권·종교·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는 기독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국통일 연합연안으로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양심을 지켜오다 풀려난 비전향 장기수 양심수(비전향 장기수)를 가족이 있는 북측 고향으로 조건없이 송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1993년 이인모 노인 송환을 위한 추진위원회와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노인 송환추진본부'를 결성하여 전쟁포로 출신인 이들의 송환을 주장했던 내용과 같으면서 이 세분을 비롯하여 송환의사를 갖고 있는 모든 비전향 장기수 송환운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1993년 3월 19일, 전 인민군 종군기자 이인모노인이 전쟁포로임을 주장하며 정전협정과 제네바 조약에 따라 원칙적 송환을 주장해 복송되었다(제네바 협정 4조 1항·전쟁포로는 적대행위가 종료된 후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포로송환을 지연시키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 반세기 동안을 갈려나 미움으로 맞았던 남북사이에 이인모노인 복송합의가 말로 민족문제해결에 또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7천만지배에게 더 큰 기대를 갖게 하는 데 충분했었다.

그러나 그 뒤 김영삼 정권의 대북고립과 정적으로 남북관계는 더욱 멀어지게 되었고 송환 운동도 함께 제 개입단체의 송환촉구열이나 재한민 서명운동에 그치고 있었다(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이미 1992년 제4차 장기수회담에서 비전향장기수의 조건없는 석방과 송환을 특별사업으로 채택, 일괄적 송환을 촉구해오고 있으며 불교인권위원회에서는 1996년 비전향장기수 고향방문을 위한 불교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활동을 하다 진관선님이 구속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2월 22일 '3·1절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박상현 법무장관은 우용각노인 등 비전향장기수 19명을 조건없이 석방하고 이들에게 '특대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했으며 '특대조치'가 '복송'을 뜻하는지는 기자들 질문에 대해 부정하지 않음으로써 오랫동안 잠겨있던 비전향장기수의 송환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돌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발언에 맞춰 2월 27일 KBS TV에서, 27일엔 인민TV에서 비전향장기수 송환 공개토론회가 있었고 50%가 월남 남는 시정까지 조건없는 송환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흐름으로 지난해 말 11월 29일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의 결성을 위한 건담회가 민간계, 전국연합, 전

정연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비전향 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가칭)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지난 12월 27일 추진(준) 기자회견을 갖고, 2월 29일 종로 이화관에서 각 사회단체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을 결의하는 모임이 열렸다. "그간 사회단체와 여러 사람들 노력으로 장기수 분할이 꾸준히 석방되었고, 이에 고마움을 표시로 마련된 자리였다"고 전하는 전국연합 자부심과 함께 "원칙적 석방"을 "앞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문화제나 다채로운 등 다각적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은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민족적 경사

는 수천 수만 밖에 있는 한 어린이가 분할되어 죽어가는 것을 살리기 위해 공수되자 그 귀환을 모든 수단을 다하는 것을 거듭 보고 있다. 왜 같은 민족 부모 형제 죽어 가는데 그 마지막조차 지켜볼 수 없는가? 고령에도 병약한 이 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전 가족을 만나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세상의 복음이며 인문의 명령이다.

다음으로 인류가 오랜 시간을 두고 추구해 온 인권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은 한반도가 아니고 인공에 보편적 가치로 존중되는 문명사회이다. 강제수용되거나 강제로 묶여 사는 시대는 지났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는 국경과 인종, 문화와 종교, 정치체제를 넘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러한 기본권은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이 도덕적 권리와 법적 구속력까지 지닌 채 확고하게 보장하고 있다. 김영태 노인에 대한 제네바 협정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전쟁포로로서 국제법상 권리를 주장하고 휴전협정에서 약속된 전쟁포로송환인의 송환요구"는 더 이상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유엔 육군에서 풀려난 비전향장기수(전)는 세로까지 전 거주지 또는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 또는 어떠한 외국으로 이송된 뒤에도 구속되었던 송환하게 되면 북측 또는 그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보내는 것이 인본적 규범이다. 따라서 '자유권이' 되었다면 거주지 권리와 자유의 가는 면으로 송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남북 통치권과 분할을 놓고 대립과 전쟁을 계속하고 있어도 전후에 더 나아가 7.27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강령에 따라 자주·평화·민주·통일을 실현하는 분리가 될 수 있도록 대량에서이다. 이들의 송환이 어느국에도 정치적 선지가 되어서는 안 되고 민족적 감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국민에게 인본과 기본, 자유를 함께 갖고 세계에 대해서 우리민족의 자유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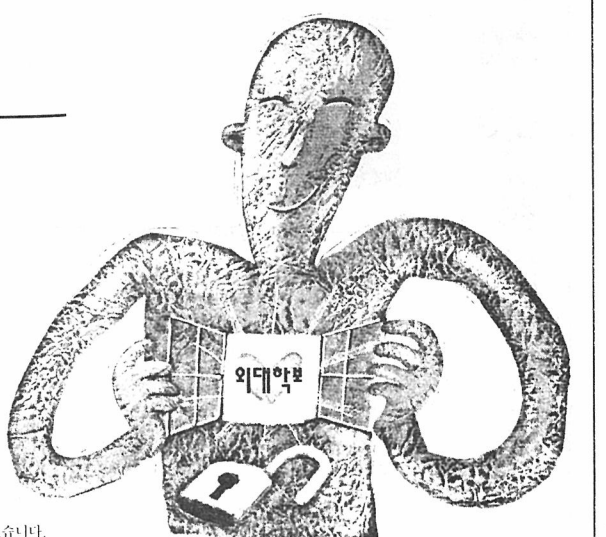
권요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외 · 대 · 학 · 보 · 는 · 독 · 자 · 여 · 리 · 분 · 의 · 것 · 일 · 니 · 다

외대학보, 내꺼!

네, 물론입니다.
외대학보는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것이며,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외대학보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문제작품을 무엇이든 만듭니다.
학생회관 2층 기사로서
직접 가지오거나 컴퓨터 통신
(하이텔, 나우루스(OEDAE))이나
e-mail(oedacpress@hanmail.net)으로 보내주십시오.

※ 참고: 보내주신 글에는 원고지 1매당 2,500원 상당의 원고료도 있습니다.



대학생의 삶

문학소모임 인터뷰 · 서울배움터 해외문화회

“세미나를 통해, 다른 세상을 본다”

· 설문조사 결과 많은 학생이 책을 읽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생각하?

학생들이 읽는 생각과 사색을 요구하는 문학책을 읽기보다는 당장 실용적인 영어·컴퓨터 공부에 치중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또, 문학이 주는 잔잔한 즐거움보다 책을 읽고, 오락을 하는 일시적인 쾌락을 좇는 것도 문학을 멀리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 하지만, 사색의 깊이를 더해주는 문학은 모두에게 중요한 읽을거리이다. 이 현상을 비관할 수 있는 대안은 없나?

특별히 비관할 수 있는 대안은 없다고 생각한다. 똑같은 틀에 갇혀서, 자신의 기호에 맞지 않은 책을 제도교육 12년간을 읽은 학생들에게 문학책을 가까이하기에는 벽이 있는 것 같다. 조금씩, 조금씩 문학책을 접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해외문화회 활동을 하면서 얻은 것이 있나?

우선 생각을 넓힐 수 있다. 이것 저것 조금씩 알게된다 보니 여기저기 탐구욕이 생겼다. 또, 예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문학에 대한 호기심을 풀 수 있어서 좋았다.

· 해외문화회의 특징이 있나?

해외문화회는 책이 있고 사람이 있다. 읽을 책과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좋았다. 나 혼자 읽는 책은 나만의 시각으로 보는 세상이지만, 세미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었다.

· 독서를 기피하는 대학생들이 한다면 한다면?

문학은 우리의 삶을 반영한다. 문학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타인의 삶 또한 경험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문학책을 읽든, 영어·컴퓨터 공부를 하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해야한다. 1~2학년대에는 다양한 접근과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독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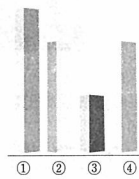
박준표 기자 marquess@hanmail.net



〈해나되는날을읽기 우리말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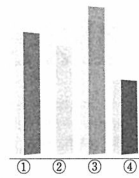
배움터 내 문학·지적 풍토 진단

문학을 통한 사색 세상을 바로 세우는 힘



1. 한달에 독서량은 어느정도 읽나?

- ① 1권 34.7%
- ② 2~3권 26%
- ③ 4권이상 13.3%
- ④ 독서량 없음 26%



2. 방학기간동안 몇권의 책을 읽었습니까?

- ① 1권 27%
- ② 2~3권 24%
- ③ 4권이상 32.7%
- ④ 독서량 없음 16.3%



3. 주요 독서분야는?

- ① 소설, 수필분야 56.7%
- ② 사회·인문과학분야 16%
- ③ 전문서적(학술서적) 14%
- ④ 기타 13.3%

4. 학내문화소모임이나 학회의 활동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있다 43%
- ② 모른다 67%

외대생들의 책가방 속엔 어떤 어떠한 책들이 있을까?

대학이 점점 '취업을 위한 관문' 정도로만 인식되면서 서문, 문학, 공부를 하고, 토론하는 분위기도 점점 사라져 가는 듯하다. 이에 본보에서는 학내 문학·지적 풍토를 고찰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설문 분석

한달에 한권의 책도 읽지 않는 외대생들이 전체 설문조사 응답 학생의 52명(22.67%)으로 5명당 1명은 전공서적을 제외한 책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금) 9배움터 150명(이문과·100명, 왕산과·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학생들의 독서습관이 파악되었다. 한달에 1권 꼴로 독서를 하는 학생들이 34.7%로 양적 150명의 응답자 중 52명(34.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2~3권을 읽는 학생이 39명(26%), 한달에 4권이상 읽는 독서량이 20명(13.3%)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방학기간 동안에는 많은 학생들이 책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학 중 4권 이상의 책을 읽은 학생은 49명(32.67%)으로 가장 많았고 2~3권의 책을 읽은 학생이 36명(24%)로 나타났다. 방학 중 1권 이상의 책을 읽은 학생이 139명(92.67%)으로 방학기간 동안 독서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학동안 책을 읽지 않는 학생은 11명(7.3%)으로 가장 낮은 응답율을 보였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의 분야는 소설·수필분야로 56명(36.67%)의 학생이 응답했다. 다음으로 인문과학·사회과학분야 24명(16%), 전공서적을 제외한 학술서적 21명(14%)으로 집계됐다. 소설·수필을 제외한 분야의 학생들은 19명(12.67%)로 많은 학생들이 흥미위주의 소설·수필분야에 집중된 독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학내 문학 소모임이나 학회활동에 대해 알고있나?'는 질문에 이문과·왕산과 100명 중 67명의 학생들이 '모른다'고 대답해 학내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을 나타냈다.

배움터 내 문학·지적 풍토 고찰

'특별히 뛰어난 작품은 보이지 않는다', '책 좋은 작품이 눈에 띄지 않는다' 최근 3년동안의 외대 문학상 시상부의 심사를 맡은 신정림(사단)씨의 작품평은 이렇게 시작된다. '작품 가운데 크게 돋보이는 작품은 없었지만...'이라고 평하는 소설부분 심사위원 송영(문학가)씨는 외대 문학상의 당선작 없는 가작으로 학생들의 작품을 평가했다.

DOR이 편을 치고, 테크노가 대학가를 휩쓸면서 눈 앞의 쾌락을 좇는 현상이 만연하면서 깊은 사색을 하고, 글을 쓰고 고민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학이 앞서 사회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던 사회과학자적이 하나, 둘 사라져 가는 것이 바로 이런 무분별한 대중문화에 젖어가는 대학인들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좋은 척도이다. 설문 분석 결과에 나오지만, 학기 중 전공 관련 서적을 제외한 도서 대출 현황은 매우 저조하다. 대외협력 27명(18%)을 포함한 5명(미만)의 도서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수는 10명(6.7%)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김희철(사회·정의) 3군은 '개인적으로 영감을 통한 감동을 줄이기 때문에 영화를 통해 생각한다'며 '영감이 소설을 비롯한 문학작품 못지 않은 사색을 던져주기도 하지만, 사유의 기반은 역시 독서'라며 독서가 사색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말했다.

'문학이 과거와 같은 역할을 누리 못한다는 사실은 세상살이를 것도 없는데 99년 외대 문학상 심사위원이었던 김남일(소설·가·네덜란드에 7백만)씨는 '문학은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데 역할을 보낼 수 있을지'라며 문학을 통한 사색이 세상을 바로 세우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표 기자 marquess@hanmail.net

생활

인사동 살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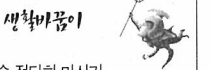
김거리를 걸을 때 느껴지는 고종스런 분위기가, 아담한 찻집과 향긋한 카페 세가 숨쉬는 공간... 지금의 인사동 거리는 종로 2가에서부터 인사동을 지나 관훈동 북쪽의 안국동 사거리까지를 말한다. 인사동의 명칭은 조선시대 한성부의 관인방(방아)와 한은 조선시대 수도의 행정구역 명칭의 하나로 상인의 밀집한 구획을 일컫는 말) 인사동에서 가운데 글자만 인과 사를 따서 부른 것이다. 최근 사거리가 이런 인사동에 계 획화되었던 재개발 안을 청화하고 다각적인 보존대책을 모색하고 있어 반가움을 안겨주고 있다.

사거리 건축지조와 시장개발 연구원은 지난 9일, 인사동길 일대에서 건물 신축시 폭 2~3m 안팎의 좁은 골목길 확장 금지, 필지를 합한 대규모 개발 불허, 화랑 필방 등 인사동 특유의 용도만 허용 등의 인사동 보존 3대 원칙을 마련,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부른 것 이다. 또 인사동에 우수건축처를 늘리고 있는 단란주점, 개미집, 편의점 등의 입주부터 화랑·팔방·공예품점·포구점 등의 용도모반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6~70년대부터 이루어진 '국토개발 5개년 계획' 등의 무분별한 개발 정책에 의해 우리나라 곳곳이 아무런 특색 없는 상업지구화가 된 곳이 많다. 고층 건물이 나뉘고, 고속도로 등등도 상황에 맞지 않는 계획으로 무용지물이 된 예 도 허다하다. 그런 차원에서 인사동을 살리는 운동은 비단 몇 명의 움직임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움직임을 담고 서는 의의가 감할 것이다.

처 한잔이 생각나는 주말쯤 가게서로 개발계획에서 살아남은 인사동의 옛거리를 걸어도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문화부장 oedae98@hanmail.net



술 적당히 마시기

계간지, 산구대역식, 과모고지 등 몸의 활기찬 교장은 여기저기 모음이 많 습니다. 이 모음에서 빠지지 않는 주시 '술'. 술자리 우리의 모습은 참다운 것이 대신 후 '바세라, 부러워가 아시지... 우리 술은 적당히 마시고, 서로 알맞고 대며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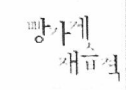
문학



이흥재 사진 / 안도현 글
실천문학사 7,500원

그리고 구멍가게가 생기기 전에는?

'장난과 장미'를 주제로 한 사진 에세이집. '사리저기'는 것'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사진작가 이흥재의 '장난사진'에 사진 안도현의 글이 실렸다. 책 속에는 활기찬 장의 모습만이 아닌 인간미가 뽐낸 풍기는 후배사진들과 함께 '구멍가게'의 시작과 유래를 따져 마 침내 장난에 이르는 사진의 글이 이루어진다. 사진가에게 남아있는 장난. 하지만 이 책은 장난을 찍은 사진이 아니라, 장난에 왜 머무르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웃어넘기면 그 주름살이 왜 미친 사람들이 담은 우리 이야기 주인공 책이다. 또한 책 뒷부분에는 미술평론가 정경호의 평문을 실었다.



장난개 재규격

들기만 해도 상상이 마구 뿜날 것 같은 이 재미있는 책의 책에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중·단편 여섯권이 실려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하루키'라는 가작 한이 세 계속에서 자기 존재의 정답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자 한다. 재규격 된 단편 '장난개 재규격'은 한 방안에 주재할 수 없는 공짜감을 느낀 아내가 무장강도와 되어 동태 역도라는 집의 캄캄한 밤으로 가는 내용으로 출가라는 단상으로 환희하게 이적지 지도 모도지만, 일상속에 내재한 비미성들을 일깨우는 이색인 인물하고 재규격문화와 맞닿고, 그 밑바탕에 원형보다 원형 11번도 깊 있게 만드는 사적인 문예비평으로 하루키 소설의 깊은 매력 이다.



무라카미 하루키 작
정해 7,000원

민족통신

민족통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을 주제로 통원문 동문 및 실천과제를 다루고 있는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는 통원의 의지를 지닌 자작인들이 '민족통신'을 통원문사를 마감하고자 재관한 주주적 통원의 역사를 창조하자는 기 차로 창설되었다.

조직구성은 지난 1999년 4월15일 반기문집 운영위원을 맡아 첫 공식모임을 갖고 원정위원 운영위원대표로 노정 남학을 선정한 이래 현재는 통원의 운영위원과 3명의 후 이어서, 원정위원과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이트는 출판, 정치, 사회, 종교, 인권, 국제 등의 주제를 가지고 통원문사 각급 민족통신위원회에 소신도 받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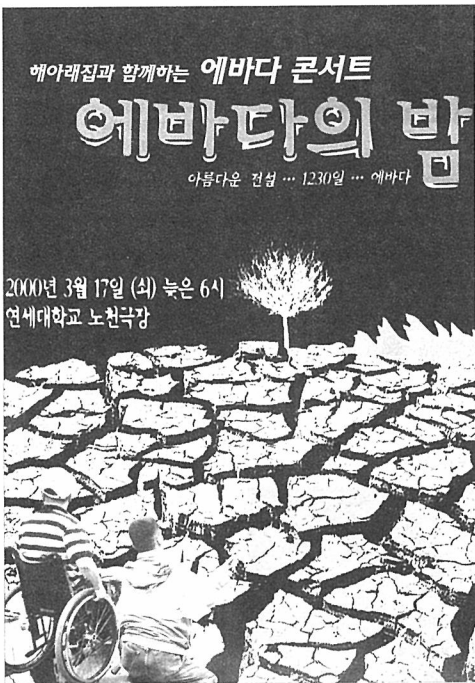
입국금지

과연 '이 세상에 국적이 없는 사람이 존재할까?' 그 답은 '존재한다'이다. 그들은 곧 입국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인 조선 국적을 가진 조선족이다. 조선이란 나라가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조선'은 국적이 아니다.

'입국금지'는 특히 재일 동포 3세대이 되고 있는 국 적문제를 다루어 국적 난민으로 찾아가 하는 이들의 아픔을 말하고 있으며, 이미 효력을 상실한 재일 동포의 난민에 대해 해결하고 있는 조선족들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다.

'조선' 국적의 무국적자는 지금까지 '재일'이 인고 왔던 것까지 모조리 문명의 집중적인 표현체이다. 이 무국적자가 가진 역사와 존재함은 이미 1945년 8월 15일 국적이 아니라 전쟁 이전의 민족 대대에게 조국을 빼앗긴 민족의 역사였지만에도 불구하고, 후쿠 만 제기가 지난 지금도 무국적자로 남아 있잖는 것이 며, 이런 경우에는 세계 어디에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

〈외대 영성사업단〉 태여문의 961-4605



서울매출터 동아리 세내기 한마당

우리 동아리로 와요!

지난 2월(목)부터 9월(목)까지 일주일동안 서울매출터 동아리연합회에서 '세내기 그대에게 대학문화의 미래를 건다'라는 기치로 동아리 세내기 한마당을 개최했다. 2일부터 6일까지 동아리의 활동과 세내기 모집공고를 담은 대자보를 붙이는 거리집으로 시작한 이번 행사는 7일부터 9일 낮까지 있었던 분과별 행사와 9일 오후 5시30분부터 약2시간에 걸쳐 벌어진 분과별로 구성됐다.

개별분과의 행사는 이루어진 분과행사로서 사회과학분과는 사·과분과에 대한 인식조사사업과 함께 윤동, 정문지 베포들의 사업을 통해 세내기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기도 했으며, 기독분과는 노래를 통해 기독분과 홍보를 진행했다.

붉은광장에서 5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동아리 세내기행마당의 본관은 민속놀이바인의 길 놀이로 시작, 탈놀이, 탈춤, 경당의 무술시범, 관현악의 연주로 분위기를 달랐다.

각 동아리분과의 분과장과 동아리회장이 동아리 소개를 통해 세내기들에게 각 동아리의 성격과 활동을 알리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또, 교육 과정 대자보와 사·과분과의 정교한 수북지와 등록금 인상 반대지시 서명운동 등을 통해 주제적인 대학문화를 만들어가는 동아리의 모습을 보여줬다.

예전의 동아리 한미당이 동아리 홍보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개별 동아리들이 어렵게 홍보해 나갔던것과 달리, 이번 행사는 집중된 기간에 세내기에게 각 동아리들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학이 생활공동체라는 말을 한다. 이처럼 대동문화와 달리 대학인이 주체가 되는 대학문화는 자기는 사람들이 동아리인들이라고 생각 한다" 이승주 (동아리연합회 회장, 사회·정의 4)군은 동아리들이 대학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라며, 세내기들과 함께 대학문화의 미래를 만들자고 전했다.

또 이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세내기들에게 대학문화를 자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말하고 "대학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만드는 공간이다. 관심있는 동아리가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대학문화를 함께 만들어보면 좋겠다"며 세내기들에게 용기를 낼 것을 부탁했다.

박준표 기자 marquess@honnmail.net

'헤어래집과 함께하는 에바다 콘서트' 미리 가보기

천일간의 잊혀진 투쟁을 가슴속에

1986년 11월 27일,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아인생들이 일어났다. 비리 재단의 착취 때문에 개밥그릇 뒤지고, 가계집 달린 아이들이었다. 부모들도, 선생님들도 몰랐다. 그들이 못거나 허름한 식당에 '헤어래집' 간판 달고 벌써 1230여일이 지난다. 장애인 시설비로에 맞서, 우리 사회의 모순에 맞서 힘겹지만 아름다운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헤어래집 아이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함께 아름다운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 오는 17일(금) 늦은 6시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지식의 벽을 허물고 희망의 햇살을 장애인에게'라는 기치로 헤어래집과 함께 하는 에바다콘서트가 열린다.

에바다정신장애를 위한 연대회의를 주관으로 열리는 이 콘서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특수교육협의회, 각 대학 총학생회, 특수교육과, 봉사 동아리 등 10여개가 넘는 후원 단체가 함께 한다.

인권유린의 현장 에바다는 6억 7천여만원의 국고지원금 횡령, 강제 노역 등 장애인에 대한 존엄성 수탈로 이용하고, 농아 700여명의 인권침해와 미군에 의한 성추행을 방치하는 등 실로 이들의 만행은 상상을 초월했다.

하지만, 수차례의 반송, 신문보도의 고발, 대동문의 악수, 수심차별의 집회 그리고 1200여명의 농아농아도 불구하고 공무원, 경찰, 검찰, 정치권 등의 에바다 비리사슬로 에바다재단 정상

화는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큰 50년 넘게 이어져 온 비리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사건이며, 그 사회적 패러다임을 바꾸어 가는 힘은 싸움이다"고 전하는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교육조직국장 김형수(연세대 4)군은 "이번 공연을 통해 4년 동안의 에바다 분규로 지친 농아 학생들에게 희망과 꿈을 불어넣어주고, 패쇄적이고, 비합리적인 장애인시설 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환기시킬 것이다"며 공연의 취지를 덧붙였다.

헤어래집과 함께 하는 이 행사는 크게 전시행사, 콘서트, 대동들의 장소로 구성된다.

전시행사는 에바다거점점으로 각종 사진전, 영상전을 통해 '인권유린의 현장' 에바다의 1230여일 여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콘서트는 에바다 싸움과 함께 하는 의미 있는 사람들의 만남의 자리가 될 것이다.

한스밴드,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에서 헤어래집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수화를 했던 이경원, 에바다의 싸움과 늘 함께 했던 박준과 유금진, 이복에 크리닉, 김경호, 꽃다지, 우리나라 등이 출연한다. 또한 에바다 투쟁 영상물, 권오일 선생님과 헤어래집아이들의 감동적 투쟁 이야기, 헤어래집 농아학생들과 서울에 온합사들과 함께 하는 수화공연 등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

김군은 "투쟁의 결의보다는 모든사람들이 에

바다의 문제를 가슴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감동의 자리로 만들고 싶다"고 전한다. 특히, 박준씨의 "약속을 지킨다"는 이미 에바다의 노래가 되어버렸다. 이렇듯 에바다는 에바다 농아 학생들과의 약속뿐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서울지역 서부총동맹연합의 품목로 이어지는 대동농회는 장애인과 일반인들의 어울림의 장이 될 것이다.

김군은 "에바다 농성을 계기로, 에바다 문제를 해결함과 함께 이런 인권의 문제를 학생과 대동들에게 널리 알리고 사회 복지 사업들 등 개성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헤어래집아이들의 어깨를 다독여주고 에바다를 비롯한 장애인 시설 문제에 대한 우리의 깊은 고민을 가슴으로 울려라 하는 이번 공연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 대한 조그만 마음의 따뜻함을 깨울 수 있는 아름다운 밤이 될 것이다.

대: 3월 17일(금)

곳: 연세대학교 노천극장

입장료: 일반1,2000원 학생9,000원 장애인6,000원 (단체할인 20명-6000원)

(입장료는 헤어래집의 후원금으로 쓰인다.)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문 학 단 신

서울

영화동아리 올림, 신입생 환영 영화제

영화동아리 올림에서는 신입생 환영영화제를 13일(월)부터 15일(수)까지 3일간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 행사는 고전, 에니메이션, 토렌트 무비 세 분야의 영화10편을 상영하며, 상영 마지막날인 15일(수)에는 신입생 환영을 받는 만찬이 있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올림 회장 정태원(서양·영어 2)은 "세내기들에게 영화를 접하는 폭을 넓게 제공하고 싶었다"며 "세내기들이 직접 상영작을 보고 난 후 자신만의 평가를 내려보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림에서는 영화제 기간동안 찾아오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사바비회를 모집한다. 사바비회원에게는 올림의 상영회, 자체행사 등에 대한 자료제공과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원하는 관람객은 전자우편 주소를 관계자에게 적어주면 된다.

	13일 (월)	14일 (화)	15일 (수)
1시			올림반
3시	내년대동대회	연인들	카무라비바
5시	그리스그리스제사상	그리스그리스제사상	없다
5시	사우라리온	세상의 이야기, 피크닉	

대인이 외대인에게

용인배움터 철학과 동양철학회

한국인으로서, 동양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양 철학을 따로 공부한다는 현실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서구화되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다. 우리들은 대인이란 서구 교육체제의 수혜자이지만, 우리를 자신이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 걸음은 바로 우리의 존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함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천재"를 위해 철학과 대에 존재하는 단순한 학과로 소개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공부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열린 마당이 바로 "천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천도문 구성원들 모두는 철저한 학점 관리를 바탕으로, 철학과를 비롯한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학과 학기와 이번 학기를 지나면



이기훈
(인문·철학 3)

서, 천도문 구성원들 전원은 장학금으로 선발되었다.

"천재"의 스티디는, 매주 일요일에 동양의 고전을 원전으로 감독하는 '한문감독'과 관련된 주제를 연구한 논문을 선택해서 논평하고 있고, 육요양에는 정해진 교재의 발제와 발표, 세미나를 매주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논쟁적 토론술'과 '논문 작성법'을 학습하게되며, 인문학의 기본 소양을 배운다. 이런 소양은 대학 교육에서 인문학 전공자들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우리 학부생들이 주체가 되는 공부이며, 어려운 부분은 대학원 선배님들에게 지도를 부탁하기도 한다.

"천도문"은 한국의 대학생으로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의 올바른 학문적 가치관 형성을 위해, 서로의 도움을 공유하는 학문 공동체이다.

www.lycos.co.kr

“저 하나면 열 선배안 부럽대요”

라이코스 00학번 새내기 모집

새내기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힘차게 내딛으십시오!
라이코스가 선배처럼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검 색 처음 써보는 레포트, 어디서 어떻게 자료를 찾아야 할지 막막할 때 라이코스 검색을 만드세요. 방대하고 수준 높은 자료가 A+를 책임집니다.

콘텐츠 게임, 애니메이션, 채팅, 쇼핑 등 다양하고 즐거운 라이코스 콘텐츠라면 공감시간도 걱정없습니다. 라이코스 미팅에서 사이버 연인도 만들어 보세요.

이메일 대학생이라면 이메일은 기본. 라이코스에서 무료 이메일을 만드세요. 전국은 물론 세계의 누구와도 쉽고 빠르게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특히 새내기들은 자기소개도 홈페이지로 표현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만들어 보세요. 멋진 홈페이지에 나를 보는 친구들의 눈길까지 달라집니다.

클럽 보고 또 보고 즐거운 동기를, 열광하기 힘든 동창들, 또는 그냥 마음 맞는 친구들이 있다면 사이버 클럽을 만드세요. 친구들과의 만남이 더욱 따뜻해집니다.

게시판 즐거운 모임을 많은 대학생들, 각 모임의 게시판을 라이코스에서 만드세요. 게시판만 확인하면 개강파티, MT 등 어떤 이벤트도 놓치지 않습니다.

* 라이코스의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라이코스 인터넷 리더를 모집합니다.

라이코스코리아에서 라이코스 모바일 해주시 라이코스 인터넷 리더(Lycos Internet Leader)가 될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기간: 3.4~3.15)

www.lycos.co.kr

인터넷의 시작은 라이코스

LYCOS

학 습 단 신

민중대외위원회, 4·13총선과
김대중정부 중간평가 토론회 개최

신자유주의 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중
대외위원회의 주최로 오는 25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기독교연합회관(종로5가)에서
'4·13 총선과 김대중정부 중간평가 토론회'가
열린다.

민주노총과 민주화위헌 전국교수협회의
회(민교협), 사회진보연대 공동주관으로
열리고 김대중정부 2년 평가와 함께 낙
선·낙선문제를 넘어서는 진보진영의 총선
대응을 모색하고 계획된 이번 토론회는
총3부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제1부에서는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중간평가(주호정, 민교협)

제 2부에서는 부분별 평가를 하는데 ▲노
동정책(민주노총) ▲농업정책(전국농민회
총연맹) ▲빈민정책(전국빈민연맹) ▲구조
조정과 개발정책(투직협·WTO) ▲대국
민행동) ▲교과정책(민교협) ▲사회복지정
책(참여연대) ▲보건의료(보건의료단체
표지자회) ▲남북관계(전국한국인) ▲인권
(인권운동사랑방) ▲환경(녹색연합)

제3부에서는 '총선시기 민중운동의 대응
전략'의 주제로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
맹, 민교협, 사회진보연대, 전국연합, 민주
노동당, 청년노동당, 노동자의 힘이 참여한
총합토론이 이어진다.

이와 관련 이현태(사회진보연대 사무국
장)은 "다기으로는 총선을 맞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진보진영의 저항운동
이 총선연관으로 이어져 이번 총선거 구조
조정정책에 대한 민중의 심판으로서, 또 제
대로 진보정치와 사회개혁정치에 대한 새
로운 진보정치의 여파있는 실험으로서 자
라야한다"고 말했다.

가
리사나

뮤추얼 펀드
(Mutual Fund)

미국 투자전략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펀드 형태에 개방형, 화상형의
성격을 띤다.

개방형이란 투자자들의 펀드 가입
탈퇴가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며, 회
사형이란 투자자들이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
하는 형태를 말한다.

즉 뮤추얼펀드는 증권투자자들이
이 펀드의 주식을 매달매 주주로서
참여하는 한편 원할 때는 언제든지
주식의 가치만큼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한다.

투자방법에 따라 보통증권, 균
형펀드, 수익펀드, 채권·우선주펀
드로 구분되는데, 이 중 보통증권
의 규모가 제일 크다.

한·일 독도 분쟁의 역사와 원인

일본의 팽창주의에 희생된 '우리땅' 독도

지난 해 말 10여명의 일본인이 독도(獨島)에
효과를 올리고 일본 정부가 이를 묵인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독도를 놓고
벌어진 한·일간의 오랜 분쟁의 역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동안 한·일 두 나라는
독도 영유권 다툼을 진행하면서 가까이는 조선
시대로부터 멀리는 삼국시대의 자료까지 거론
하였지만 실제로 독도가 양국의 분쟁 대상으로
된 것은 근대 이후 100여년 사이의 일이다. 메
이지유신 이후 팽창적 근대화 정책을 시행해
왔던 일본 제국주의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1904년 한일 의정서와 1905년
이른바 을사보호조약 그리고 1910년 한일 합방
을 통해 강요하여 조선을 잠정하였고 그 외곽에
독도 또한 일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독도 문제는 역사적으로 모호한 어떤 지역을
놓고 벌이는 영토 싸움이 아니라 일본의 침략
주도, 군국주의 정책과 표리를 이루고 있는 것
이다. 1945년 일제는 패전국의 식민지는 일제
왕실회복 시기기로 한 카이로 선언을 수락하며
무조건 항복하였고 이에 따라 해방된 조선 영
토와 함께 독도도 원상회복 되었을 것만
사실이다. 그러나 전후 일본은 과거사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군국주
의 부활의 길을 걸어왔다. 최근까지도 계속되
고 있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이러한 전
후 사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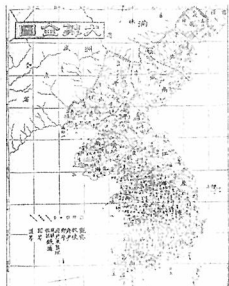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일본이 독도 영유를 주장하는 유
력한 근거 중에 하나로 17세기 일본인 상인이
받은 "도해면허"를 들면서 이 시기 이미 독도
를 인지하고 독도를 근거로 경제 활동을 하였
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는데 도해면허란 해외로
진출을 허가하는 문서로 이 지역이 일본의 영

토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
반면 같은 시기 우리측의 자료는 대부분 정
부가 작성한 것으로 직접 관찰과 당사자를 토대
로 하였다는 점에서 일본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근래에 들어 일본은 독도를 1904
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일본 영토로 편입시
켰기 때문에 소위 '러일전쟁 직후의 일지'라는
말"이라는 무지한 선전 일화에 따라 그들 영토
라고 주장하는 데 이 또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미 대한 제국의 판본에 독도가 우리영토임을
밝히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한·일간의 독도 분쟁이
계속되는 원인은 앞서 언급했던 일본의 군국주
의 부활과 함께 우리나라의 자주적이지 못한
외교 행태에서 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한국의 68년 한일협정을 맺을 때에도 94%를
이해 모든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여 이후 문제의
소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러한 외교 관행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제정된 신협일 어업 협정은 굴욕
무는 외교의 본보기라 할 수 있다. 94년 이미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새로운 어업협정이
필요하게 된 상황에서 실무준비를 계속하여
협정된 많은 난맥상을 노출한 것은 두고두고
사실상의 열매나 다름없는 경제수익을 취하는
협정에서 이득지도 아닌 '중간수역' (일본은
이를 공동관리수역이라 부른다)을 만들어 독도
를 그 안에 포함시켜 버림으로써 일본과의 계
속적인 '분쟁의 씨앗'을 만들어 놓았다는 점만
으로도 중대한 정책 실책으로 비추어 외교의 표
본이라 할 만하다.

유 상 준
(민족문제연구소)



◀ 대한지도, 1899년 제정한 지도로서
우리나라의 영토로 울릉도영에 독도를 우선으로 표
기하고 있는데, 세종실록지리지의 '우산과 무릉(울
릉도) 이도(二島)가 울진현 전령의 바다 가운데 있
으며...' 라는 대목과 일치한다.



▶ 독도에 새겨진 한국영토의 표시

독도의 가치와 보존방안

어업협정에서 영해12해리 명확히 규정, 중간수역에서 독도 제외 필요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중간수역'으로 포함
되어버린 독도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
이번 어업협정에서는 독도를 포함하는 동
해 중앙부 일원에 남한민족에 속하는 다각
형 수역을 설치하고, 그 안에서 한일어업공동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한일양국이 제정,
심사하는 규범에 따라 양국국민이 어로에 종
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독도가 가
지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가치와 독도가
갖고있는 해양 전략상의 중요성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어인과 그 존재
는 권리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독도가 가지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이익과 권리를 확보해야 했지
만 협정에서 중간수역을 만들어 독도를 아무

런 명칭이나 위치의 표시도 없이 포함시키
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그 내에서 일본의 국
내법을 집행하고 우리와 이익을 나눌 수 있
도록 공동관리 구역으로 전락시켰다.

일반적인 유엔해양법협약에 관련하여 독도
와 12해리 영해를 지금껏 우리가 확보하고
있지만 특별법에 준거한 '한일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근거하여 일본분쟁은 독도의 영
해가 중간수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독도
영해 내에서 일정한 관찰권을 행사할 수 있
다. 따라서 일반법상 독도의 영해가 특별
국제법인 신 한일어업협정 독도가 포함된
중간수역제도에 포함되었으니, 그 영해가 중
간수역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으려면 12해리
영해를 어업협정에서 명확히 규정하든 독
도를 중간수역에서 제외해내야 할 것이다. 이

젠 독도가 분쟁상태에 있다는 것이 확연하
더라도 국제사회에서 독도는 더 이상
'우리땅'이 아닌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이
자라잡게 되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한국정부는 "독도 및 그
영해에 대한 확고한 주권을 행사해 오고있
고, 천연기념물로서 환경, 생태적으로 보호가
치가 높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인도를 불
허한다"면서 "어업협정은 독도영유권과는 무
관하며 영해 12해리 외곽에 설정되는 배타적
경제수역만을 대상으로 하여 독도와 그 영해
12해리는 어업협정 대상수역에서 제외된다"
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일본은 '다케시마(독
도)는 일본국 영토이므로 시마네현 주민들의
호적 이전은 우리의 주권사항이며 주민들이

일본 영토내로 호적을 옮기는 것을 막을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독도를 일본인이 거주
하는 유인으로 가정 사실상의 공동수역이
아닌 자국의 영토로 만들 계획이다. 이에 대
해 우리 정부는 호적등록 취소를 강력히 요
구하며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이지만 좀 더
실효적이고 법적인 대책은 없는 것으로 보인
다.

오는 2002년에는 한·일 공동 월드컵이 개최
된다. 현재 독도를 둘러싸고 이러한 여러
는 쟁은 끊이지 않고있는 가운데 양 국가간의
우호감정을 가지고 월드컵을 성공으로 치를
수 있을까. 만약 우리나라 국민이 대대도로
호적을 옮긴다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지
공급하다.

소운이 기자 uneel51@hanmail.net

주한미군은...

○... 지난 12(일) 기자회견서 한 할머니
가 또 차례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실이 발견되었을 당시 4개가 부
러져있고 얼굴에 땅이 있어 자살은 아니
라고 검찰은 발표했다.

또 전날 한 미군방사자와 할머니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 주민의 증언에 이
번 사건도 주한미군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보고있는...

이에 크로니클자 "얼마 전에 있었던 살
인 사건의 피가 미르도도 전야 또 살인을
저지르는 주한미군... 주한미군..." 이
러야 말을 잊지 못했다.

(통)

○... 4·13 총선을 한 달 남짓 앞둔 가
운데 선관위에 직발된 선거법 위반 행위
가 지난 15대 총선의 세태에 이른다는데...
이 소식을 접한 우리 크로니클자 이 사
태를 해석하는 바 "미인들이 나열한 말
표하는 등 시민의식이 고양되자 정치인들
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은 부정, 부패,
비리...뿐이리"

(BB)



○... 故 김양무 선생의 노제가 진행될
때 전두환씨가 인도의 통령을 막았고 이
에 항의하던 시민이 경찰에 의해 경찰에
의해 부상을 당했다는...

이에 크로니클자 "민중의 지팡이인 경
찰이라면 그 지팡이는 민중을 폭행하는
데 쓰는 거 아냐?"

(남)

○... 요즘 정치권의 신당창당을 두고
"공천에 떨어지지도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신당을 창당할 뿐이다."라는 말로 한 정치
권을 표현하는데.

우리 크로니클자 이 말의 기원을 따져보
니 바로 의대였다는데... '비리교수'로 찍혀
도 절대 학교를 떠나지 않는다. 여전히 수
업은 말짱 뽀이다."

(홍)

변화는 없다?

2000학년도 교직과정 이수 신청확인 및 후기접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을 위하여 교직과정 이수
신청 확인(1999학년도 2학기 신청자) 및 후기 접수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대상
신체 2차검사가 실시되어 있는 학과의 학생으로,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는 2학년 3학기 이수한 재학생 (45%가 등록자)
2. 접수기간 : 2000년 3. 7(화) ~ 3. 17(금) 까지
3. 접수장소
가. 서울 · 시립대학교 교학과 (☎ 02-961-4033)
나. 용인 · 용인캠퍼스 교무처
4. 제출서류
가.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소정양식) 1부
나. 주민등록초본 1부
다. 전세 신청표 1부
5. 선발원칙 및 방법 : 2000년 1학기 강의시간표 '수강신청' 지침 중 교직
과정 및 참조

6. 유의사항
가. 2000·1학기 강의시간표의 '수강신청' 지침 중 교직과정 및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참조하여 숙지할 것
나.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 최종 승인된 학생만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

*1999 2학기 교직과정 이수 신청자 중 1학기에 등록한 학생 및 수강신청자
는 학과에 비하여 학과별 15%이하로 제한하여 배정한다. 배정결과에 상관이 없
는바 배정한다.

2000. 3. 7

사범대학장

후기등록기간 안내

2000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 추가등록 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등록기간
2000년 3월 13일(월)부터 2000년 3월 20일(일)까지
2. 등록장소
재임은형 본점 및 지점, 국민은행 본점 및 지점
해운대본점 및 지점(학지점 응시후생 학생에 한함)
3. 등록금액
등록금 납부 통지서 참조
4. 장학금 수혜학생은 장학증서와 함께 은행에 납부할 것
(등록금 납부 통지서에 장학비 표시된 학생은 제외 · 차액만 납부)
5. 등록금 영수증은 재발행하지 않으므로 소중히 보관할 것
(영수증은 소독세탁 사형극락에 의거 교육비납입증서로 사용할 수
있음)

* 추후 등록기간은 없으며 등록기간 외에는 등록금을 수납하지 않
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용환과장 권리과 또는 용인캠퍼스 총무과
에 문의하면 (구내전화 403, 404)

2000. 3.

재무처장

제2기 외대세로미(무모)를 입사보도우미 모집

홍보실과 교무처 입학처에서는 학교 홍보와 2000학년도 우수 신입생 선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제2기 외대세로미(홍보모형, 입사보도우미)를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 관심있는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1. 활동사항
가) 홍보모형 : 홍보실내 소속하여 '외대소식' 등 제작 및 이미지광고에
재학생 모델로 활동.
나) 입사보도우미 : 입학처에 소속하여 각종 입학전형준비와 입사보도
도우미 역할을 함.
2. 모집대상 : 한국의외국어대학교의 재학생
3. 선발인원 : 총12명 (홍보모형 6명, 입사보도우미 6명)
4. 선발 절차 및 일시
가) 홍보모형
1) 1차시험 : 내부 및 접수기간 : 3월 13(월) ~ 22(수) 17:00까지
2) 2차시험 : 내부 및 접수처 : 홍보실, 용인캠퍼스 교무처
3) 3차 시험 : 3월 22(목) * 합격자는 개별 통보함
4) 4차 시험 : 3월 24(토) * 합격자는 개별 통보함
나) 입사보도우미
1) 1차시험 : 내부 및 접수기간 : 3월 13(월) ~ 22(수) 17:00까지
2) 2차시험 : 내부 및 접수처 : 교무처 입학처, 용인캠퍼스 교무처
3) 3차 시험 : 3월 22(목) * 합격자는 개별 통보함
4) 4차 시험 : 3월 24(토) * 합격자는 개별 통보함
5) 최종합격자 발표 : 가) 일시 : 3월 31(일) 17:15 이후
나) 방법 : 교내 인터넷 홈페이지, 외대신문, 홍보실
게시판, 개별통보
6. 문의 : 홍보실 ☎02-961-4033, 교무처 입학처 ☎02-961-4072
* 위의 신청자격과 기타 신청 방법(외대세로미)은 학과마다 큰로상학과에 원고로 놓
기다. 특히 12학년 재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교무처장 홍보실장

학교 홍보슬로건(캐치프레이즈) 공모

홍보실에서 본교의 21세기 발전방향(Vision) 및 학
교이미지를 간결하게 알릴 수 있는 슬로건(Slogan)과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공모합니다.

채택된 슬로건은 각종 홍보물 및 광고에 활용할 예정이니
구성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응모기간 : 3월 13(월) ~ 22(수) 17:00까지
2. 대상 :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3. 분량 : 6자부터 20자 내외
4. 발표일 : 3월 31(일) 금, 학교 홈페이지, 외대신문, 홍보실 게시판,
개발동보
5. 당선지 사항
가) 최우수작 (1명) : 상장과 상금 50만원
나) 우수작 (2명) : 상장과 상금 20만원
다)佳作 (3명) : 상장과 상금 5만원
* 본교의 티셔츠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슬로건이나 캐치프레이즈(캐
치프레이즈 참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해당 당선작이 없을 경우 해
당 시상금을 유보할 수 있음.
6. 접수처 : 본관 2층 홍보실, 연락처 961-4033, Fax 960-1319
7. 제출방법
가) A4 양식에 슬로건과 슬로건이 포함되는 내용, 개인 연락처
(소속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홍보실에 직접 제출
나) E-mail로 접수 : howdy@mainc.hufs.ac.kr

홍보실장

학익단식

경기에 고위급관리 포함한
로비문서 발견

각 학교에서 등록금 인상을 반대해 많은 일이 있어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27일 경기대학교 총학생회에서 교육부 관계자와 경찰, 변호사 그리고 언론인 등이 주로 포함된 로비문서 발견되어 충격과 우려를 주고 있다. 발견된 로비문서는 추석과 설날에 각 인사들에게 제공된 선물의 액수를 적어놓은 것과 강의의 고액 수업에서 지출된 액수가 적혀있는 영수증이다. 또한 발견된 로비문서를 가사와 해 1면에서 다루었던 '경제학보(경기대학교 신문)'가 학교 측에 의해 가사가 삭제되어 백지 상태로 발견되는 일도 발생했다.

이번에 로비문서는 A-D까지의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로비문서의 명단에는 국회의원과 관계자, 지방자치장, 변호사, 언론사, 경찰, 공무원, 경찰, 경기대학교 이사 등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고액 영수증은 3백 72만 8천원의 금액이 계산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경기대학교 총학생회측은 "학업단속이 우리 학생들의 권리는 완전 무시로 일관되며 등록금 고액인상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학교장급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김대중 정권은 이를 부추기며 유폐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살고있는 땅의 현실이다"라며 교육 정책에 대해 무관심한 김대중 정권을 규탄했다.

故 김양무선생 49세
14일 진행

지난 1월 28일 타계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대변부장 상임부장의 49세가 오는 14일(화) 오전 11시 광주 망월동에 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민족의애를 시작으로 내외빈, 유가족 소개, 추도사, 유가족 인사발 장례주행 경과보고 및 이후 무량방향 보고, 추도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양은찬씨 통일부장관 면담
불허, 재촉구

지난 6일(월) 오후 3시에 예정된故 김양무 범민족본부남측본부의 미방인 양은찬씨 통일부장관의 면담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었고 이에 양은찬씨와 비전향장기수 윤희보 선생, 김양무선생추모사업회원 4인 등은 6일 오후시점 통일부를 항의방문하였다. 장관 대신 자리에 나온 실동근 교무2과 과장은 "비해서 장관님과의 면담이 불가능하다. 아무나 장관님을 만날 수 없다는 말을 드린 적이 있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양씨 등 일행은 일방적 면담취소의 "북한 주민정권인식"의 자연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김대중정부에게 통일부장관과의 면담을 재촉했다.

한편 통일부 경호관제자들은 화장실까지 따라붙어 방문민객의 이동을 시켰다.

정부총합청사 앞과 서경대학교에서 진행된 개강투쟁선포식

반교육적, 외세의존 정권 규탄

전국의 대학교육이 등록금인상과 김대중 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해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목) 정부총합청사 앞에서는 '반교육적 김대중 정권 불신임과 국가교육정책 확충을 위한 개강투쟁선포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서울지역총학생회(서울총), 반민중적 보수정치 학파와 민중정적 실현을 위한 대학생 총선투쟁본부(총투본), 반민중적 반민중적 교육정책 전면 수정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학생총회(교육대총회) 등 2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번 4월 13일에 있을 16대 총선 대학생 교육후보 출마예정자 투쟁기(99년 삼균 관대학교 총학생회장)는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학생부들은 1년에 1200만이라는 교육부담을 안고 있다"고 말하고 "정권은 경제 회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민중의 삶은 거리를 내몰고 있다"며 경제회생 논리의 허구성을 이야기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공약으로 교육정책을 6%로 확충하겠다고 했으나 계속 교육정책은 적어지고 있고 올해도 4.2%로 불과하다"며 "정권은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무시하고 있다"고 교육에 무관심한 정권을 비판했다.

이후 학생들은 '모집된 권력·학박 체제, ECT 백지화, 국정입대 인명화 및 정책 백지화, 교육정책 확충'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항의서를 낭독했다.

그리고 이 항의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해 정부총합청사 안으로 들어갔던 해나나 전투경찰에게 제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

생들과 전투경찰간의 무력충돌이 있었다. 전투경찰에 의해 교육부 진입이 제지되자 학생들은 김대중 정권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조항을 만들고 계란을 던져 현 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한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 김준민(한양대 1)군은 "돈이 얼마 오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등록금이 학생들을 위해 쓰이지 않고 또 정부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해주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저녁 서경대에서는 서울지역총학생회(서울총) 소속 학생 300여명이 모여 '학살만행 미군법규 규탄과 사대매국, 반교육정권 김대중 정권 퇴진'을 위한 서총련 개강투쟁선포식'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일(월) 미대사관 기습시위를 했던 학생들의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기습시위에 참가했던 우리학교 김준민(서양·포르투갈어 3)군은 "얼마 전 우리 민중이 주한미군에 의해 또 살해되었다. 일제시대 우리의 조상들은 열차 안에서 한 명의 여성이 일본인에게 회를 담아서 전 민중이 그에 대해 싸웠다고 말하고 앞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했다."

이어 진행된 정치발언에서 서울신대대학교 총학생회장 손우정 군은 "주한미군 범죄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처벌조치 제대로 할 수 없는 불행한 한미행정협정의 철폐를 주장했다. 또한 손군은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한다. 정권도 미국도 우리의 문제를 풀

어주지 않는다"며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정권을 비판했다.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 최영 군은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철폐, 농가부채 해결, IMF 재협상 등 많은 공약을 내세웠지만 지켜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김대중 대통령은 413총선을 승리하기 위해 온갖 포장을 하고 있지만 더 이상 부패한 정치를 원하지 않는 민중들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며 패권 싸움에 정선당은 정권을 규탄했다.

이어서 서총련 일시외장 박재민(경기대 총학생회장) 군과 모든 참가자들은 '학살만행 미군법규 규탄과 사대매국, 반교육정권 김대중 정권 퇴진'을 위한 서총련 개강투쟁선포식'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200만 명에 달하는 양민들을 학살하고 학투에 5년 1년에 2000여 건에 달하는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주한미군은 어떠한 반성과 사죄도 하지 않고 있다"며 "김대중 정권도 이러한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사과·배상을 요구하기는커녕 한미관계에 손상이 갈까봐 유야무야 넘겨주고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와 김대중 정권 퇴진을 위해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철수 주한미군'이라고 적혀있는 선조기의 화형식을 진행하며 주한미군 철수와 김대중 정부의 퇴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다.

최호봉 기자 hobbang1083@hanmail.net



▲ 9일(목)있었던 '반교육적 김대중정권 불신임과 국가교육정책 확충을 위한 개강투쟁 선포식'의 참가자들이 교육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위해 전투경찰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 9일(목) 서경대에서 있었던 '학살만행 미군법규규탄과 사대매국, 반교육정권 김대중 정권 퇴진'을 위한 서총련 개강투쟁 선포식 자리에서 참가자들이 '철수 주한미군'이라고 적힌 선조기 화형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폭행당한 시민 공안기관 상대로 고소준비중

시위현장을 지나가다 전투경찰들에게 폭행을 당한 한 시민이 공안기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13일 오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상임부장의故 김양무 씨의 노제가 진행되고 있던 충무로에서 길을 지나가던 윤지현씨(28)는 한때에 배치된 전투경찰들이 인도를 가로막고 통행을 차단하자 다른 시민 약 30명과 함께 이에 항의하면서 길을 열 것을 요구했다. 당시 시위는 차도에서 벌어지고 있었으나 경찰들은 인도까지 막고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던 것이다.

한편의 과정에서 전투경찰들은 윤씨를 차도로 끌고 가 구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윤씨가 쓰고 있던 안경이 파손·분실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윤씨는 "경찰이 없었다면 길을 지나가던 안경만은 찾아뵈려고 호소했으나 전경들은 '집에 돌아가라'며 막무가내로 돌려보냈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관련한 윤씨는 전투경찰들이 들고 있던 핸드마이크를 붙잡고, 경찰을 가만 부대의 소속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지휘관으로 보

이는 경찰은 전투경찰들에게 하여금 윤씨를 돌려싸게 한 뒤 핸드마이크를 삼을 잡고 있던 윤씨의 오른손을 비탈고, 그 지휘관은 윤씨가 잡고 있던 선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손목을 한번 더 꺾었다. 그리고 그후 폭행을 한 경찰은 5~6명의 전투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음침침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이에 윤씨는 15일 고안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다발성 타박상 및 두 요골 골절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윤씨는 이러한 사건을 안타깝게 통해 밝히고 그 당시 경찰에게 있던 증인을 찾았다. 또 한 당시 경찰관이 윤씨의 팔을 비드는 장면이 찍힌 사진까지 제공받은 학생자가 나타나 현재 윤씨는 공안기관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위한 운동(사법방)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이에 윤씨는 "파괴 많이 난다. 힘없는 국민들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오히려 폭행하는 것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무고한 시민들에게 폭행을 일삼는 경찰을 규탄했다.

최호봉 기자 hobbang1083@hanmail.net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우리학교 서울메타버 투쟁본부는 오는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 밤이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그 취지는 무엇보다 어떠한 내용으로 전개될 것인지 투쟁본부장 박준성(사회·행정 4)에게 물어보았다.



학교 내에서 밤이 집회를 계획하게 된 동기는 지난 해 노년제를 시작으로 많은 양민화살과 고령제 상조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주한미군 범죄 등이 일반 언론에서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미국을 보는 시각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그러나 미국과 김대중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국민들의 눈과 힘을 하기에만 급급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규탄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었다.

국민들, 그리고 학생들의 반응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박준성씨는 "예전에는 시민들이 주한미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준다는 브란디가 있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얼마 전 용산 미군기지에 항의방문을 할 때에는 많은 시민들이 서명도 동참해 주시며 또 선전전을 할 때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시며 '수고한다', '힘내라'는 말을 많이 해주었다. 그리고 지난 해 10월 8일에 주한미군철수를 이야기하며 붉은 광장에서 진행된 한 손도장 찍기 행사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단지 주한미군에 대한 이야기만 진행하기가 김대중 정부는 공약사항인 국가보안법 철폐와 교육정책 확충, 농가부채 해결 등의 공약은 어느 것도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교육정책에 교육정책 6%확충은 커녕 계속

삭감하고 있고 주한미군 주둔비는 계속해서 인상하고 있다. 이러한 정권의 모습도 학생들에게 알려야 한다.

규제적으로 어떠한 행사가 진행되는지 학생들의 동향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학내에서 작은 집회를 진행하고 유인물을 배포할 것이다. 그리고 붉은광장과 식당에 대자보를 이용해 반대에 대한 내용을 알릴 것이다. 또 집회와 관련하여 각 단위 학생회에 제안서를 발부해 같이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3월내에 용산 미군기지 항의방문을 한번 더 할 계획이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미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단순히 주한미군의 범죄, 양민화살 뿐만 아니라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있으면 한다.

우리민족의 문제는 우리가 풀어나가야 한다. 그 누구도 대신 해 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으면 한다.

최호봉 기자

Cyber world
Leader

새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ADSL 대박잔치

한국통신ADSL에 예약 가입하는 고객, 이미 가입한 고객,
퀴즈 응모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어둠장아 삼백만원 짜리 다세대 ~ 백오십만원 상당 50대 ~

● 정정화 MP3 200대 ~

● 헌터이름표 30% 할인 (별도 3개월)

● 이번 가입자 모두 선치비 무료

● 코넷 무료제공

ADSL을
사용하는
모임

이곳도
동료들
만족
www.kt.co.kr

더 빠르고 더 행복한 인터넷 세상을 한국통신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통신
Korea Telecom
www.kt.co.kr

한국통신 ADSL 대박잔치

잔치1 예약가입자에게 설치비 면제와 30% 할인!

- 기간: 2000년 3월 6일 ~ 3월 31일
- 대상: 기간 중 한국통신 ADSL 예약가입자 중 1월말에 개통을 희망하는 고객 (기존 가입자는 제외하며 포함)
- 혜택: 설치비 면제 예약가입자에 따른 할사용료 30%할인
- 행사기간중 예약가입하는 고객에게 코넷 무료제공
- LAN 카드 무료제공 (가동식)
대상: 5월31일 예약가입자 중 1년 이상 장기사용자 후 5월 1일 이후 개통예정자
PC제어기 가입자는 제외되며, 한국 통신망 지역 신청지역 한정한다
대상: 5월31일 예약가입자 중 1년 이상 장기사용자 후 5월 1일 이후 개통예정자
대상: 5월31일 예약가입자 중 1년 이상 장기사용자 후 5월 1일 이후 개통예정자
대상: 5월31일 예약가입자 중 1년 이상 장기사용자 후 5월 1일 이후 개통예정자
대상: 5월31일 예약가입자 중 1년 이상 장기사용자 후 5월 1일 이후 개통예정자

잔치2 쿼지 당첨자에게 MP3와 ADSL 무료사용권!

- 기간: 2000년 3월 6일 ~ 3월 31일
- 대상: 한국통신 홈페이지(www.kt.co.kr)에서 ADSL 관련문제를 맞추는
가장신속한 답을 찾은 고객 중 추첨
- 상품: - MP3: MP3 플레이어 50대(20만원 상당)
- ADSL: ADSL 사용권 및 3개월 무료사용권 1,000대

잔치3 ADSL 사용고객에게 컴퓨터와 MP3를!

- 기간: 2000년 4월 25일(화) ~ 5월 25일(목)
- 대상: 한국통신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ADSL 관련문제를 맞추는
가장신속한 답을 찾은 고객 중 추첨
- 상품: - 컴퓨터: 4월 25일(화) ~ 5월 25일(목)
- MP3: MP3 플레이어 50대(20만원 상당)
- ADSL: ADSL 사용권 및 3개월 무료사용권 1,000대

● 추첨일 및 발표(잔치1/2/3 공통)

- 추첨일: 4월 25일(화) ~ 5월 25일(목)
- 발표일: 4월 25일(화) ~ 5월 25일(목)
- 공지사항: 한국통신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ADSL 관련문제를 맞추는
가장신속한 답을 찾은 고객 중 추첨

가입 및 문의

- 인터넷 접수: www.kt.co.kr
- 전화 접수: 국민번호 100번 / 전화요금 고객서비스

영화평·아버지 없는 시대 (FATHERLESS)

상처받은 영혼의 재생

감독: 시게노 요시아 / 개봉: 1998년 / 일본
1998년 만화급 하이델베르크 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분 금상 수상
1999년 제 3회 서울다큐멘터리 영상제 개막작

타인의 아픔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과연 가능할까? 그것은 영원히 불가능할 지 모른다. 당사자가 갖고 있는 아픔은 자신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화 속에서 인물이 갖고 있는 아픔을 가장 진솔하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영화를 찍으며 늘 고민하는 문제이다.

〈아버지 없는 시대〉는 다큐멘터리 속 인물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문제점 해결을 제시해준 영화이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자신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 직접적으로 카메라를 들이댄 영화이기 때문이다. (영화의 기획자는 주인공인 무라이시 마사아키다. 그리고 감독인 시게노 요시아는 무라이시 마사아의 친구이다.)

영화의 전반부는 무라이시 마사아키 가족으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은 영혼이었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왜 그 상처받은 영혼을 재생하기 위해 자신에게 카메라를 들이댔는지 설명한다.

“내 이름은 무라이시 마사아키다. 나이는 22살이고, 현재 일본영화화교를 다니고 있다. 학교도 잘나가지 않고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 없는 시대〉의 첫 장면은 검은색 가죽 장갑을 낀 무라이시 마사아키가 일본의 밤거리를 돌아다니며 독백하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카메라는 그가 포로로 영화관에서 만난 중년의 남자와 동상애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단지 마음이 아프다는 이유로 그의 가슴에 칼로 자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내가 자해를 하는 것은, 칼로 인한 상처의 아픔 때문에 잠시나마 내 상처받은 영혼을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의 중반부는 무라이시 마사아키가 왜 가족들을 만나서 이따금씩에 대해 이야기한다. 일련의 인터뷰 속에서 무라이시 마사아키가 재혼한 자유분방한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한 계부에게서도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어린시절 이혼한 친아버지가 다른 가족의 가정에서 사는 모습이 무라이시 마사아키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시게노 요시아 감독의 카메라는 무라이시 마사아키 자신의 상처받은 영혼을 재생하기 위해 어머니와 계부, 그리고 친아버지를 찾아보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담기 시작한다.

하지만 무라이시 마사아키의 상처받은 영혼을 재생하기 위한 여정속에서 보여지는 진실은 상처받은 영혼이 무라이시 마사아키는 아픔을 보여준다. 영화는 네 사람 모두가 자

신들의 아픔을 내면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한다. 한쪽의 아픔은 타인에게 숨겨진 상처를 만들었고, 또 그 상처는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아픔을 만들었던 것이었다.

마치 안과 밖이 구분이 없는 ‘외부무스의 때’처럼 네 사람의 아픔은 서로 공존되고 있었던 것이었다.

무라이시 마사아키 자신의 상처받은 영혼을 재생하기 위해 시작한 만남과 대화는 네 사람의 문제를 표면화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과정속에 네 사람이 각자 자신들의 가슴속에 숨겨두었던 아픔을 이야기 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영화의 후반부는 무라이시 마사아키 친부, 어머니, 계부와 각각 이해하고 용서하며, 아픔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은 무라이시 마사아키의 상처받은 영혼의 재생이 아닌, 네 사람 모두의 상처받은 영혼의 재생이었다.

다큐멘터리는 카메라를 도구로 하는 세상과의 싸움이다 라는 말이 있다. 〈아버지 없는 시대〉는 다큐멘터리가 세상을 향한 싸움이며, 자신을 향한 싸움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아버지 없는 시대〉에서 보여지는 주인공의 상처에 대해 깊이를 찍는 카메라의 모습, 다큐멘터리의 주제를 전달하는 데 얼마나 유익한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단지 감독의 카메라 시선으로만 무라이시 마사아키를 봤

다면, 그의 내면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에 대해 〈아버지 없는 시대〉처럼 깊게 담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무라이시 마사아키를 둘러싸고 있는 세 사람의 상처에 대해서도, 내면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과정도 지금까지 여과없이 다가서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이 〈아버지 없는 시대〉가 여러 평론가들로 부터 감각적인 리얼리티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게한 이유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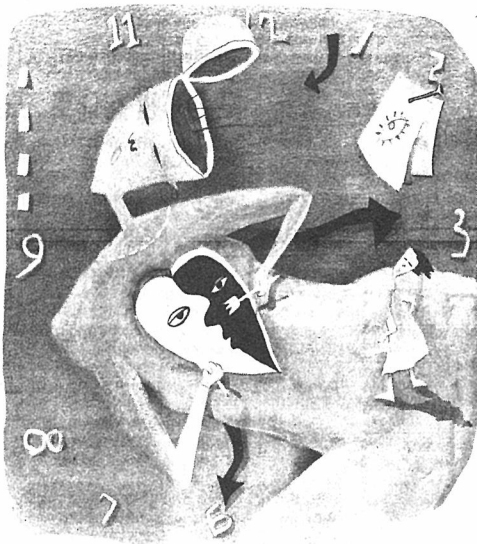
위와 같은 이유로 해서 〈아버지 없는 시대〉가 다큐멘터리 속 인물의 아픔을 얼마나 진실되게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문제점 해결을 제시해줬다고 평가한다.

즉 자기 자신의 상처 받은 영혼의 재생과정을 찍는 모습속에서, 제 3자인 감독이 단지 관찰자 입장에서 볼 때 보다 훨씬 깊게 다큐멘터리 속 인물의 진실에 접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다큐멘터리는 현실을 무대로 해서 찍는 영화이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속의 리얼리티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관객에게 전달되는가의 문제는 감독에게 끊임없는 도전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다큐멘터리가 현실을 무대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또한 결코 사라지지 않는 문제가 될 것이다.

문은희
(동학·민원 4, 후학)



오늘 충무사에서 학생들과 직원들간의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다. △인상원 등록금 고지서 발송 △중독물체 연습공간 철거 △시당과 학교를 오가는 학교버스 노선배치 등이 학생들과 어떠한 이야기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항의방문을 했다. 시당의 힘을 모아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모습에서 내가 대학생임을 실감하게 된다.

최현정 기자 skydawn@hanmail.net

남은 교편

주진형 <동유림·책교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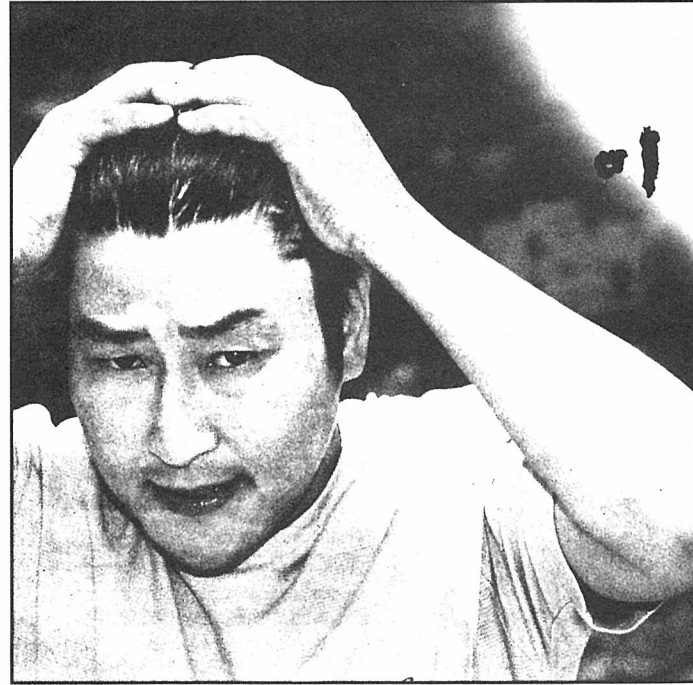
교직 경력 5년 앞당기겠다고 그는 이제 십자가가 된단다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고 시험 문제기처럼 필요한 말에서 어색한 첫기침을 한다

“그는 전교조가 아니었다 약간의 혼기를 받은 적도 있다 그런 날이면 발이랑에 훌훌히 막아 놓은 미안함은 아이들이 좁은 교실 안에서 더운 입김을 내뿜었다 그것은 마음한 희호리처럼 느껴졌었지 그는 붉어진 얼굴로 세상이 흰치 보여진 네모난 창문을 열어 찍었다

유형에 민감한 발과 퇴장국을 한 줄이는 아내에게 ‘내 각질은 안경적이라, 앉은키에 꼭 맞는 의자값과, 몇 년후 퇴직금엔 우리도 텃밭 밭만 길 한칸쯤 마련할 수 있을게야.’

예상치 못한 마지막 수업 그에게 이제 퇴장할 시간이라고 단호한 수업 종이 울리는데 분필가루 흩날리처럼 달리는 칠판이 아득한 텃밭으로 보인다 새싹들, 한창 푸르다

이 눈빛을 기억하라!



교육재정을 6%로 확충하겠다고 김대중 대통령, 그러나 교육재정은 오히려 4.2%로 낮아져 등록금은 9.8%나 인상되었습니다. 이제 등록금 300만원시대가 머지 않았습니니다. 누가 보장해야 할 교육의 공공성은 어디 갔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이 눈빛을 기억하십시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